

율곡 사상 입문을 위한 기초 용어 해설(고급편)

임태홍(문학박사)

01. 율곡의 이기론

‘이기론’이란 리(理)와 기(氣)에 대한 논의를 말한다. 율곡의 이기론으로는 주요한 개념으로 ‘기발이승(氣發理乘)’·‘이기지묘(理氣之妙)’·‘이통기국(理通氣局)’을 들 수 있다.

1) 기발이승

‘기발이승(氣發理乘, 기가 발하고 리는 탄다)’ 개념은 율곡이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리와 기가 상호 발한다는 설)을 부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 기가 발하고 리는 거기에 편승할 뿐이라는 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퇴계의 ‘이기호발설’은 리와 기 양자가 모두 발동할 수 있다고 본다. 율곡은 이에 반대하여 기 한쪽만 발한다고 주장한다.

율곡의 ‘기발이승설’은 어떤 사물의 움직임에서 리와 기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발(發)’이란 발동(發動)을 의미한다. 발동이란 움직임(動)을 발한다, 혹은 촉발한다는 뜻이다. 즉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기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율곡은 기발이승에 대해서 태극의 동정(動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명한다.

“기발이승이란 무엇인가? 음이 정(靜) 하고 양이 동(動) 하는 것은 기가 스스로 그런 것이지 누가 시키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양이 동하면 리가 동에 타는 것이지 리 자체가 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말하기를 태극은 본연의 묘(妙)이요, 동정(動靜)은 타는(乘) 바의 기틀(機)이라 하였다. 음이 정

하고 양이 동하는 것은 그 기가 스스로 그러한 것인데, 음이 정하고 양이 동하는 까닭은 리이다.”(『답성호원』)

기는 스스로 동정을 일으키는 반면에 리는 거기에 승(乘), 즉 올라탄다는 것이다. 이것은 리의 수동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움직이는 기에 편승한다는 의미이다. 즉 움직이는 기와 움직이지 않는 리를 표현하는 말이다. 자연 세계에서 이렇게 모든 존재는 기발이승의 결과, 움직이고 변화하고 운행한다는 것이다.

리는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율곡은 그 존재가치를 경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기가 없으면 발동(發) 할 수 없고, 리가 없으면 발동할 이유가 없다(非氣則不能發, 非理則無所發).”(『율곡전서』, 『답성호원』)라고 하여 리는 스스로 발동하지는 않지만 기가 발동하는 원인이 되고 주재가 된다고 보았다. 다만 리 혼자 발동할 수 있다는 주리론적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그러므로 율곡의 이기론을 ‘주기론’이나 ‘주리론’의 어느 한쪽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홍균은 율곡을 이기 이원론자로 평가하고, 정주(程朱) 철학의 주리적 경향을 계승한 퇴계와 달린 율곡은 “정주 철학의 주리적 경향을 극복하고 이기 이원적 사유를 가지고 본체론, 인성론에 일관된 이기지묘의 변증법적 사유 구조를 확립”(이홍균, 448쪽) 하였다고 평가했다.

2) 이기지묘

앞에서 율곡의 ‘이통기국’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율곡은 이러한 ‘이통기국’의 상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기지묘(理氣之妙, 리와 기의 묘함)’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리는 기의 주재(主宰)이고 기는 이가 타는 것이니(氣者, 理之所乘也), 리가 아니면 기가 근거할 데가 없고 기가 아니면 리가 의지할 데가 없다.(夫理者。氣之主宰也。氣者。理之所乘也。)”(『율곡전서』, 『답성호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기지묘’의 관계를 설명했다.

“리와 기는 이미 두 물건이 아니요 또 한 물건도 아니다. 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요, 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와 기가 비록 서로 떠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묘함(妙歟)한 가운데 리는 따로 리이고 기는 따로 기여서 서로

뒤섞이지 않으므로 한 물건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록 리는 따로 리이고 기는 따로 기라 하더라도 한데 붙어 간격이 없어서 선후(先後)가 없고 이합(離合)이 없어 두 물건이 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물건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非理則氣無所根柢。非氣則理無所依著。既非二物。又非一物。非一物。故一而二。非二物。故二而一也。非一物者。何謂也。理氣雖相離不得。而妙合之中。理自理氣自氣。不相挾雜。故非一物也。非二物者。何謂也。雖曰理自理氣自氣。而渾淪無間。無先後無離合。不見其爲二物。故非二物也。是故。動靜無端。陰陽無始。理無始。故氣亦無始也。)(『율곡전서』, 「답성호원」)

‘이기지묘’란 리와 기가 묘한 조화를 이룬 모습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리와 기는 불상리(不相離), 즉 서로 떠나지 않는 관계이며, 또 그것은 불상잡(不相雜), 즉 서로 섞이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며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리와 기 이 두 가지 존재가 두 개가 아니면서 하나가 아닌 것으로 묘한 합(妙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율곡의 ‘이기지묘론’이다.

『성학집요』(수기편)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리와 기는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라고 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그 전 사람들의 해석을 참고한다면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이와 기는 혼연히 간격이 없어서 원래부터 서로 뗄 수 없으니, 두 가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자가 말하기를, ‘기(器)도 도(道)요, 도도 기이다.’ 하였다. 비록 서로 뗄 수는 없더라도 혼연한 가운데서 서로 섞여 있지 않으니 한 가지라고 지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자가 말하기를, ‘리는 리요, 기는 기이니, 서로 섞여 있지 않다.’ 하였다.” 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말을 합하여 음미하고 사색한다면, 이기의 묘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有問於臣者曰。理氣是一物。是二物。臣答曰。考諸前訓。則一而二。二而一者也。理氣渾然無間。元不相離。不可指爲二物。故程子曰。器亦道。道亦器。雖不相離。而渾然之中。實不相雜。不可指爲一物。故朱子曰。理自理。氣自氣。不相挾雜。合二說而玩索。則理氣之妙。庶乎見之矣。)”

리와 기는 서로 간의 간격이 없어서 뗄 수 없으니 둘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서로 뗄 수는 없더라도 서로 섞여 있지 않으니 한 가지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같이 있으면서 각기 다른 성격이나 역할이 다름을 설명한 것이다.

율곡 이전에 퇴계 이황은 리를 특히 중시했으며, 화담 서경덕은 기를 더 중시했다. 퇴계의 경우는 기를 리의 하위개념으로 보았으며, 반면에 화담의 경우는 기를 더 높이 보고 리를 경시하였다. 이 두 사람과 달리 율곡은 리와 기를 똑같이 대등하게 중시했는데 이것이 이기지묘의 이기론이다.

이러한 ‘이기지묘’의 개념은 율곡이 현실 세계를 주목한 결과 제시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황준연은 주자의 이기론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희의 …… 리 개념은 물질세계에 앞서 존재하며, 세계 존재의 1차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며, 또한 일종의 ‘절대정신’이다. 현상의 물질세계는 2차적이며 파생적인 것으로서 여기에 비로소 기의 개념이 나온다. 율곡은 이와 같은 ‘리’ 개념의 ‘객관 정신’에는 찬성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상의 이야기일 뿐 현실의 세계에서는 ‘리’와 ‘기’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그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이 바로 율곡의 ‘이기지묘’이다.”(황준연, 88쪽)

주자가 현실 세계 안에 담긴 리만을 주목하여 그것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모종의 객관적인 정신을 가정한 관념론적 유심 주의에 경도되었다고 한다면 율곡은 철저하게 현실에 주목하여 이기론을 전개한 것인데 그 핵심 개념이 ‘이기지묘’라고 할 수 있다.

3) 이통기국

율곡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일분수(理一分殊)’ 개념을 ‘이통기국(理通氣局)’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이일분수’란 ‘리는 하나인데 나누어져서 다르다.’는 뜻이다.

“리는 무형이지만 기는 형체가 있다. 그러므로 리는 통(通) 하지만 기는 국한(局) 된다. 그러므로 기가 발동하면 리가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다. 형체도 없고 행위도 없는 것, 그러면서 형체가 있고 행위가 있는 것의 주인은 리이다. 형체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서 형태도 없고 행위도 없는 것의 그릇이 되는 것은 기이다.(理無形而氣有形。故理通而氣局 理無爲而氣有爲。故氣發而理乘。無形無爲，而爲有形有爲之主者，理也。有形有爲，而爲無形無爲之器者，氣也。)”(『성학집요』 수기편)

리는 무형이기 때문에 널리 통하며, 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제한성을 갖는다. 율곡은 그것을 ‘국(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리에는 본말도 없고 선후도 없다. 본말과 선후가 없기 때문에 리는 기의 율행에 편승하여 길고 짧음이 들쭉날쭉하여 가지런하지 않지만 그 본연의 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기가 편벽되면 리도 또한 편벽된다. 편벽되는 것은 리가 아니라 기이다. 기가 완전하면 리도 또한 완전하다. 완전한 것을 리가 아니라 기이다.”(『율곡전서』, 「답성호원」)

‘이통기국’에서 통(通)은 통한다,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국(局)은 국한된다, 한계가 있다, 편벽되다는 뜻이다. 리는 세상에 널리 두루두루 통한다는 말이며, 국은 세상에 널리 통하지 않는 것, 즉 어느 한 곳, 혹은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만 통하는 국한성을 가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보편성을 가졌지만, 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국한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통기국’의 설명에 따르면, 기가 서로서로 다른데도 그 근본이 하나일 수 있는 것은 리의 두루 통함, 즉 보편성 때문이며, 리가 사실은 하나인데도 만 가지로 다를 수 있는 것은 기의 국한성 때문이다. 이리하여 변화하고 제한적인 기 가운데에서 항상 보편적인 리가 존재하는 것은 리와 기의 이러한 ‘이통기국’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율곡은 만물의 보편성과 차별성을 ‘이통기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은 율곡이 최초로 창안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성리학에서는 이일분수라고 개념으로 설명되었던 것이다. 다만, 율곡은 ‘이통기국’을 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설명 방식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다. 그는 혹시 자신의 독서가 많지 않아 기왕에 누가 했던 말을 못 보았을 수도 있으나 스스로 이해하고 창안한 것이라고 흐뭇하게 여겼다.(『율곡전서』, 「답성호원」)

황의동은 율곡의 ‘이통기국’을 율곡 성리학의 백미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통기국’의 철학적 의미는 먼저 개체의 자존(自存)과 전체의 공존(共存)이 상생하는 데 있다. 이통(理通)의 관점에서는 전체의 공존이 중요하지만, 기국(氣局)의 관점에서는 개체의 자존도 중요하다. 이처럼 개체와 전체, 자존과 공

존의 상생을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통기국’은 인성의 측면에서 기국성(氣局性)을 극복하여 이통성(理通性)을 회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이통성으로서의 인성은 평등하고 선하지만, 기국성으로서의 인성은 천차만별로 다르다. 여기서 선한 본성을 향한 기질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기국성의 극복이다.”(황의동, 299쪽.)

‘이통기국’을 천하에 보편적인 이통성과 한쪽에 치우친 기국성으로 나누어 기국성의 극복을 위해서 ‘선한 본성을 향한 기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율곡 이기론의 철학적 의미라는 것이다.

결국 율곡은 이러한 이기론을 제창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가? 일본학자 다카하시 도오루도 황의동과 같이 ‘기질의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율곡 철학의 바탕에 ‘기질의 변화’라는 명제가 깔려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율곡의 이기론은) 현실의 구체적인 세계 내지 사물 존재의 실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시점에서 입론 한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면 리 내지 태극은 불가시적인 형이상자(形而上者)이다. 그 작용은 어떻게 하더라도 볼 수 없다. 운동하고 있는 것은 음양 이기의 변화 생성의 활동뿐이다. 그래서 그는 리의 성격을 ‘무위(無爲)·무형(無形)’이라고 하고 또 기를 ‘유형(有形)·유위(有爲)’라고 하여 후자의 현실적 우위성을 강조하였다. (중략) 그의 목전의 최대 관심은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의 기를, 성현의 가르침에 의하여 검속하여 그 ‘기의 본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다카하시, 203쪽)

이러한 설명을 염두에 두고 율곡의 이기론을 되돌아보면, 율곡의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이 바로 그의 이기론에서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 율곡의 심성론

1) 심성론이란

‘심성(心性)’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면 1) 인간의 타고난 마음씨, 2)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체(本體), 3) 성정(性情) 혹은 성격(性格)을 뜻한다. 이러한 뜻은 ‘심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합해서 풀이할 때의 의미이다.

심(心)과 성(性)이라는 두 글자로 나누어 풀이해 보면, 심(心)은 ‘마음’이며 성(性)은 본성이나 감정을 뜻하나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성(性)의 의미는 다르므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음 사전, <https://dic.daum.net/>)

먼저 한국어에서 ‘성(性)’은 1)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특질, 2) 남녀의 육체적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것, 3) 생식에 있어 역할을 배분하며 암컷과 수컷을 구분 짓는 여러 특성 및 기능의 총체 등의 뜻이 있다.

이러한 뜻 외에 ‘성(性)’은 한국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격(性格), 성질(性質), 본성(本性) 등의 단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어에서 ‘성(性)’은 ‘싱(xìng)’이라고 발음하며 ‘성격’·‘본성’·‘기질’·‘성질’·‘성분’, 혹은 ‘특성’을 뜻하고 동사로 ‘화내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바이두(<https://www.baidu.com/>)에서 중국어 사전을 보면 ‘싱(xìng)’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 (1) 사람의 본성, 즉 사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심리 소질
- (2) 성정(性情), 성격 혹은 성깔.
- (3) 사물의 성질이나 특징
- (4) 성별
- (5) 생식이나 성욕과 관련된 것

참고로 일본어에서 ‘성(性)’은 ‘세이(せい)’라고 발음하며 마음·천성(타고난 성질)·사물의 성질·남녀·자웅의 구별 혹은 섹스를 의미한다.

심과 성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다름이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심성론

은 중국철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심과 성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심성론의 ‘성(性)’은 한국어의 ‘본성’에 가장 가깝다. 따라서 ‘심성론’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마음과 본성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2) 성(性)은 하늘이 부여한 것

『중용』에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즉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다. 주자는 『중용혹문』에서 “하늘이 사람에게 명(命) 한 것이 바로 사람의 성이 되는 것이다. 대개 하늘이 만물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만들 수 없는 것이 명이다.(天之所以命乎人者, 是則人之所以為性也. 蓋天之所以賦與萬物, 而不能自己者, 命也.)”라고 하였는데 하늘이 명(命) 했다는 말은 하늘이 부여했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하늘이 부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용』의 ‘성(性)’은 앞서 소개한 중국어 사전의 ‘성(性)’과는 다른 말일까? 그렇지 않다. ‘성’을 본성이나 천성으로 바꾸어도 중용이 말한 의미와 다르지 않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 본성이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 천성이다.” 모두 의미가 통한다. 본성이나 천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하늘이 준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중용』의 ‘성(性)’의 개념은 하늘이 부여했다는 뜻이 추가되었다.

그러면 하늘이 내려 주었다는 본성은 사람마다 모두 같은 것일까? 아니면 서로 다 다른 것일까? “그 사람은 천성이 착하다,” “상황이 어려우니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말들을 보면 사람의 본성이나 천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에서 본성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하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본성이나 천성을 내려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논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것이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났다.”라는 말에서 본성은 나쁜 것을 전제로 한다. 하늘에서 받은 완전체가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송의 장재(張載)는 ‘태극은 기’라고 주장하고 만물 역시 기로 만들어졌으며 기가 모이고 흩어짐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구성된다고 하였다. 흩어진 상태는 태허이며, 모아진 상태는 만물이다. 태허는 투명하고 유통성이 높은 기 본래의

존재방식이 그대로 나타나며, 만물은 기가 열등화된 상태라고 하였다. 태허의 기와 만물의 기를 차별화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태허의 기에는 도덕을 중심으로 삼는 본성(性)이 갖추어져 있으나 열등화된 기인 만물에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본래 투명한 본성을 ‘천지의 성(性)’, 열등화된 기의 현실적인 양상을 ‘기질의 성’이라고 불렀다. 인간은 수양을 통해서 기질을 변화시켜 본래의 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국사상문화사전』상, 65쪽)

이렇듯 장재는 성을 두 개로 구분하여 도덕적인 본성을 천지의 성, 그렇지 못한 성을 기질의 성으로 나누었다. 악할 수도 있는 인간의 본성이나 천성은 천지의 성이 아니라, 기질의 성이 되는 것이다.

한편 남송의 주자는 장재의 주장과 정이의 사상을 계승하여 ‘성즉리(性卽理, 본성은 리다)’ 사상을 정립했는데 그 역시 나중에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으로 나누어 인간의 본성 혹은 천성을 설명했다.

주자는 만인은 태생적으로 순수한 리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를 ‘본연의 성’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의 심신을 구성하는 기와 질에는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항상 착한 것은 아니게 된다. 즉 리의 발현 정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현명함과 어리석음, 선과 악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를 ‘기질의 성’이라고 한다. 주자는 ‘리의 발현이 충분치 못함의 차이’가 기질의 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주자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 태어날 때 완전한 본체가 아님이 없는 것이 성이다. (즉 성은 완전한 본체이다. - 역자 주. 이하 같음) 그러므로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말하면 원형리정(元亨利貞, 천도의 네 가지 덕)이라고 하는데, 사계절이나 오행, 그리고 만물의 변화가 이로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없다. 성(性)으로써 말하면 곧 인의예지라고 하는데, 사단이나 오전(五典, 오륜 즉 인간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그리고 만물과 만사의 리(理)가 이 사이를 통하지 않음이 없다.(吾之得乎是命，以生而莫非全體者性也。故以命言之，則曰元亨利貞，而四時五行，庶類萬化，莫不由是而出。以性言之，則曰仁義禮智，而四端五典萬物萬事之理，無不統於其間)”

하늘에서 받은 성은 완전한 본체이며, ‘원형리정’의 네 가지 덕이기도 하다. 또 ‘인의예지’이기도 하며 사단과 오륜 그리고 만물과 만사(萬事, 만 가지 일)

의 리이기도 하다. 주자는 이렇게 성(性)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하여 인간의 본성(性)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그것이 하늘에서 받은 완전체(全體者)라고 보았다.

주자는 같은 문장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대개 하늘과 사람에게서 성과 명의 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는 일찍이 하나 아닌 적이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물에 있어서 기질(氣)과 품성(稟)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리는 지금까지 항상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성이 순수하고 지극히 선하기 때문에 순자·양옹·한비자가 말한 것과는 다르다.(蓋在天在人，雖有性命之分，而其理則未嘗不一，在人在物雖有氣稟之異，而其理則未嘗不同。此吾之性所以純粹至善，而非若荀揚韓子之所云也)”(『중용혹문』)

‘하늘과 사람에게서 성과 명의 구분이 있다.(蓋在天在人，雖有性命之分)’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늘에서 부여한 것이 성이라는 말을 주자는 하늘의 명(命)과 인간의 성(性)으로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해석하여 각각은 명과 성이라고 하는 다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영역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리(理)라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의 영역과 사물의 영역이 기질과 품성으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리는 항상 같았다고 주장한다. 리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천지 만물에게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리는 인간에게서는 성(性)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은 순수하고 지극히 선한 것(純粹至善)으로 성을 악하다고 주장한 순자나 한비자, 그리고 성을 선악의 혼재물로 본 양옹이 말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주자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순수하고 선한 것이며 우주 만물의 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주자학의 성즉리(性卽理, 성은 즉 리이다.)라는 명제가 창출된 것이다. 중국어가 가진 성(性)의 개념은 이렇게 주자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다.

율곡의 심성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리 위에 제창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내면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전제, 그리고 우주 만물과 인간은 하나의 지고지순한 원리, 즉 리(理)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 탐구가 아닌 인격 수양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사단과 칠정

‘사단(四端)’이란 인간 감정의 네 가지 단서, 즉 ‘실마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네 가지란 측은(惻隱) 해하는 마음, 수오(羞惡, 부끄러움) 하는 마음, 사양(辭讓) 하는 마음, 그리고 시비(是非) 하는 마음이다. 측은해하는 마음은 인(仁, 어짐)의 시작이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시작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시작이며, 시비하는 마음은 지(智)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맹자』가 주장했는데 그는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칠정(七情)’이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7가지 종류로 나누어 말한 것으로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이다. 이 칠정은 반드시 여기에 제시된 일곱 가지 정만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이렇게 일곱 가지 정으로 지칭했을 뿐이다. 이것은 『예기』, 「예운편」에 나오는 말이다.

이러한 사단칠정에 대해서 주자는 깊이 있게 논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는 성(性)과 정(情)을 둘로 나누고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했다. 즉 인의예지의 네 가지 덕은 성이며, 사단과 칠정은 정이라고 했다.(『주자집주』) 이때 인의예지의 성은 미발(未發) 상태이며, 사단과 칠정의 정은 기발(既發) 상태이다. 다만 그는 기발 상태인 정 가운데 사단을 리의 발(理之發), 칠정을 기의 발(氣之發)이라고 하고 사단은 선한 것으로, 칠정은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자어류』권 53) 주자가 이렇게 세심하게 사단과 칠정을 구분한 것은 성의 본래 상태는 선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인간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이종태, 469쪽.)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이 문제는 한국 철학 사상 최고의 논쟁거리로 부각하여 조선시대 200여 년에 걸쳐 세밀하고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은 사단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퇴계는 어느 날 정지운(鄭之雲, 1509년~1561년, 호는 추만秋巒)이 지은 「

천명도」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사단은 리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는 말이 있었다. 퇴계는 이를 고쳐 ‘사단은 리의 발이며(四端理之發), 칠정은 기의 발(七情氣之發)’이라고 하였다. 즉 사단은 리가 발동한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감정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이는 주자가 『주자어류』에서 ‘사단은 리의 발이며 칠정은 기의 발’이라고 말한 것과 차이가 없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고봉 기대승(奇大升, 1527년~1572년)은 이에 반기를 들어 두 사람간에 8년에 걸쳐 편지가 오가며 철학적인 논변이 진행되었다. 고봉의 생각으로는 사단과 칠정은 똑같이 모두 정에 속하는 것이고, 칠정 밖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 사단은 리에 칠정을 기에 소속시키면 리와 기는 독립된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므로 사단 속에는 기가 없고, 칠정 속에는 리가 없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 이런 상태는 성리학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며, 리가 발한다는 개념도 성리학의 이기설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퇴계의 답변은 우선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지만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 구별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정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성에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이 구분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성을 리와 기로 나누었다면 정도 그 내력이나 주가 되는 것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퇴계는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나누어 도심을 인심의 위에 두고 인심을 절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해석을 제안한 것이다. 퇴계는 이런 입장에서 거경(居敬)을 중시하고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멀리하는(存天理去人欲) 방법으로 삼았다.

나중에 퇴계는 앞에서 말한 문구에 관해 “사단은 리가 발하여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거기에 탄 것이다(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라고 정리를 하였다. (조장연, 198-199쪽) 하지만 퇴계가 처음에 제시한 ‘사단은 리가 발하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는 주장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율곡은 이러한 퇴계를 비판하고 기대승의 주장에 동의하여 자신만의 사단칠정론을 전개하였다. 율곡은 퇴계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였다.

“마음(心)과 본성(性)을 두 가지의 작용(用)이라 생각하고 사단과 칠정을 두 가지의 감정(情)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리와 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까닭이다. 대체로 감정이 발동할 때 발동하는 것은 기이고 발동하는 까닭은 리이다.

(夫以心性爲二用，四端七情爲二情者，皆於理氣有所未透故也。凡情之發也，發之者氣也，所以發者理也。)(『성학집요』, 「수기」)

마음과 본성 혹은 사단과 칠정을 각기 다른 별개의 두 가지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 발동할 때는 기와 리가 동시에 작용(역할)을 하는 것이지, 퇴계가 말하듯이 어떤 것은 기가 어떤 것을 기가 발동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어서 율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발동할 까닭이 없으니, 리와 기는 섞이어 원래부터 서로 떠나지 못한다. 만약에 떠나거나 합치는 것이 있으면 움직이거나 고요함도 끝이 있고, 음과 양도 처음이 있는 것이다.(非氣則不能，發非理則無所發，理氣混融，元不相離. 若有離合，則動靜有端，陰陽有始矣。)(『성학집요』, 「수기」)

기와 리가 서로 떠나지 못한다는 뜻은 기와 리는 서로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은 리가 발동하고 칠정은 기가 발동한다면 리와 기가 서로 독립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한다.

“리란 태극이고 기란 음양인데 이제 태극과 음양이 서로 (별도로 따로 따로-역자 주) 움직인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태극과 음양이 서로 (별개로) 움직일 수 없으면 리와 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발동한다는 것이 어찌 오류가 아니겠는가?(理者太極也，氣者陰陽也. 今曰，太極與陰陽互動，則不成說話. 太極、陰陽不能互動，則謂理氣互發者，豈不謬哉。)(『성학집요』, 「수기」)

율곡은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된다고 보고, 칠정 중에서 착한 측면만을 가려 말하는 것에 사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의 발동 결과로 보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는 기는 발동하지만 리는 그렇지 못하고 발동하는 기에 올라탈 뿐이라고 주장한 ‘기발이승(氣發理乘)’의 이기론을 사단과 칠정에 적용시켜, 사단과 칠정 모두가 기발이승의 결과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율곡은 기는 발동하지만 리는 발동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기가 발동하여 칠정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칠정 안에 착한 부분이 사단이라고 보았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포함되어 리만 가리켜 말할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 리와

기를 겸해서 말할 때는 감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단과 칠정의 문제는 중국 성리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한국 성리학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유학자들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참고로 북송의 철학자 장재(張載)는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거느린다.(心統性情)’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통(統)은 거느린다, 통섭한다, 총괄한다는 뜻이다. 그는 본성(性)을 총괄체(統體)로 생각하고 그것을 천지의 성(天地之性)과 기질의 성(氣質之性)으로 구분했다. 천지의 성은 덕목으로 인·의·예·지가 있으며, 기질의 성은 희·노·애·락·애·오·욕의 감정이 있다. 그런데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에 의해 칠정을 절도에 맞는 본연의 상태, 즉 천지의 성이 드러나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장재의 주장을 수용한 주자는 ‘본성은 즉 리’(性卽理)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본성은 마음의 본체가 되고,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 되기 때문에 마음은 체용으로서 본성과 감정을 포괄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성즉리’는 마음 활동의 근본 법칙이 되는 것이다.

4) 인심과 도심

율곡은 사람의 마음을 2종류로 나누었다.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그것이다. ‘인심’은 인간적인 마음이며, ‘도심’은 도덕적인 마음을 말한다. 전자는 육체를 위해서 발동하는 감정이며, 후자는 도의를 위해서 발동하는 감정이다.

그는 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감정이 발동하는 데는 도의(道義)를 위해서 발동하는 것이 있다. 가령 어버이에게 효도하고자 하고 임금께 충성하고자 하는 것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들어 가려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며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종묘를 지나갈 때 공경하는 종류와 같은 것이니, 이것을 도심(道心)이라 이른다.” (『율곡전서』, 「인심도심도설」)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임금에게는 충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해하는 마음,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보면 부끄러워하는 마음 등이 도심이다. 즉 도덕적인 감정을 말한다. 이와 달리 인심은 인간적인 감정 혹은 인욕에 의한 감정을 말한다.

율곡은 인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육체를 위해서 발동하는 것이 있다. 가령 굶주리면 먹으려 하고 추우면 입으려 하고 피로하면 쉬려고 하며 정력이 왕성하면 아내를 생각하는 종류와 같은 것이니 이것을 인심이라 부른다.” (『율곡전서』, 「인심도심도설」)

인심은 육체를 위해서 발동하는 감정이다. 예를 들면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싶고, 힘들면 쉬고 싶고, 이성을 보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혹은 감정이 인심이다.

그런데 율곡의 설명에 따르면 인심과 도심이 이름으로 볼 때는, 마치 두 가지 각기 다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어떻게 발동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부른다고 보았다. 즉 마음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명칭이 구별된다.

율곡은 이렇게 설명한다.

“발동하는 것은 본래 형기(形氣)이지만 그 발동하는 것이 인의예지의 바른 것에서 곧바로 나와 형기에 가리지 않으므로 리를 위주로 삼아 이것을 도심이라 한다. (중략) 그 근원은 비록 천성에서 나왔지만, 그 발동하는 것이 이목과 사지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와 천리의 본연이 아니므로, 기를 위주로 삼아 이것을 인심이라 했다.” (『율곡전서』, 「답성호원」)

그렇다면 인심과 도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기(氣)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심이나 도심이나 모두 본성에서 발하는데, 기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이 가려지면 인심이 되고, 가려지지 않으면 도심이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사사로움에서 나온 감정은 기를 위주로 하여 인심이라고 하고, 인의예지의 바름에서 나온 감정은 리를 위주로 하여 도심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임옥균, 127쪽)

율곡은 또 이러한 인심과 도심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인심과 도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심과 도심이 서로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처음에는 도심이었던 것이 사사로운 뜻이 개입되어 인심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심이 멋대로 강해지게 해서는 안 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인간적인 감정이 자라게 놔두어서는 안 되고 그런 감정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도덕적인 감정은 마땅히 보호하고 육성하여 차츰차츰 넓혀가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율곡은 인심과 도심을 설명할 때, 자신이 제시한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의 원리를 동원한다. 즉 기가 발하면 리가 거기에 올라탄다는 원리를 인심과 도심에 도입하여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심은 순전히 천리(天理)이므로 순선(順善), 즉 아주 착한 것이다. 반면에 인심은 천리와 인욕의 양면을 겸하므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5)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앞서 율곡은 기가 발동하여 칠정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칠정 안에 있는 착한 부분을 사단이라고 지목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 가운데 포함되며 리만 가리켜 말한 것을 사단이라고 하고 리와 기를 겸해서 말한 것을 칠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의 성(本然之性)’과 ‘기질의 성(氣質之性)’의 관계와 같다. 율곡은 이렇게 설명한다.

“사단과 칠정은 바로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과 같다. 본연의 성은 기질을 겸하여 말할 수 없지만, 기질의 성은 오히려 본연의 성을 겸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율곡전서』, 「답성호원」)

‘본연의 성’이란 순수한 성으로 리이다. 그러므로 기질의 성이 그 안에 포함될 수는 없다. 반면에 기질의 성에는 리와 기가 함께 있다. 그래서 기질의 성에는 본연의 성도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이다. 사단 역시 리이므로, 리와 기가 함께 있는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그 반대로 칠정 안에는 사단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율곡은 인간의 성(性), 즉 본성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본성(性)에는 본연의 성(本然之性)과 기질의 성(氣質之性)이 있는데, 이 본성은 각기 다른 두 개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일 뿐인데, 리만

을 가리켜 말하느냐 아니면 리와 기를 합하여 말하느냐에 따라 그 표현상의 명칭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리만을 가리켜 말할 때는 본연의 성이라고 하며, 리와 기를 합해서 말할 때는 기질의 성이라고 하였다. (『율곡전서』, 「답성호원」) 즉 이와 기가 묘합된 것이 기질의 성이라는 것이다.

율곡이 말한 본연의 성은 앞서 장재의 천지의 성과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아울러 장재가 말한 기질의 성 역시 율곡의 기질의 성과 유사하다. 다만 설명 방식이 다를 뿐이다. 장재는 ‘열등화된 기의 현실적 양상’이라고 기질의 성을 설명한 반면에 율곡은 리와 기를 합해서 말한 것이 ‘기질의 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율곡은 이렇게 설명한다.

“성(性)은 리와 기의 합이다. 대개 리가 기 가운데 있는 연후에야 성(性)이 된다. 만약에 형질의 가운데 있지 않다면 마땅히 이것을 리라 불러야지 이것을 성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형질 가운데 나아가 리만 혼자 가리켜 말하면 본연지성이다. 본연지성은 기를 섞어서는 안 된다.” (『율곡전서』, 「답성호원」)

앞서 주자가 성즉리(性卽理), 즉 ‘성은 즉 리이다.’라고 정의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율곡은 그러한 성 개념을 바꿔서 ‘성은 즉 리와 기의 합이다(性者, 理氣之合也)’라고 하였다. 양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율곡의 설명에 따르면 리는 기 가운데 있는 뒤에 성(性)이 된다. 즉 형질 가운데 있어야 성이지 그렇지 않다면 리라는 것이다. 성은 바로 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율곡이 말하는 성은 기질의 성, 즉 형질 가운데 있는 성이기 때문이다. 주자가 말한 성은 본연지성이다. 즉 ‘성즉리’라고 할 때의 성은 ‘본연지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연지성은 기를 섞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6) 기질의 교정

율곡은 인간이 ‘기질의 성’ 안에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은 원래 순선한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본연의 성’인 리를 스스로 발양하지 못하고 항상 ‘기질의

성'을 타고 발용하는 까닭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상 세계에 선악이 혼재함을 보고 리의 본연을 알지 못하거나 기의 영향을 받아 악으로 흐르게 됨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욕망의 조절이 가능하고 기질을 교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율곡은 질의 변화를 통하여 인간이 인간 본래의 본성, 즉 본연의 성을 회복하여 순전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종태, 472쪽)

율곡은 나아가 학문을 성실하게 하는 자라면 반드시 편벽된 기질을 고쳐서 본연의 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성학집요』, 「수기편」, 송석구, 202-203쪽 참조.)

(1) 기질이 다름으로써 교정의 방법도 서로 다르다. 기질의 성은 사람마다 그 바탕이 서로 다르지만, 착한 습관을 키우면 착하게 되고 악한 습관을 키우면 악하게 된다.

(2) 기질을 바로잡는 방법은 극기(克己)에 있다. 개인적인 사욕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극기다. 사욕을 이기면 행동이 예에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일상 행동 모두가 천리 아닌 것이 없다.

(3) 기질 교정의 공은 공부에 있다. 율곡은 『중용』 문구를 인용하여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군자의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할 바에는 반드시 완성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늘 남보다 백배의 공을 들여야 한다.”라고 한 주자의 말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배우지 않으면 몰라도 배울 바에는 능하지 못한 것을 그만두지 않고, 묻지 않으면 몰라도 물을 바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도 생각할 바에는 터득하지 못한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몰라도 분별할 바에는 분명하지 않은 것을 그냥 두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몰라도 행할 바에는 독실하지 않은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백 번이라도 하고,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천 번이라도 한다.”

율곡은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기질의 성이 사사로운 욕심에 가리지 않고 본연의 성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람의 천성

은 본래는 착한 것이며 순전한 천리(天理)이지만, 사사로운 욕심에 가리기 때문에 천리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보고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면 그 천성이 온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율곡전서』, 「경연일기」)

03. 율곡의 정치론

1) 연원과 영향

율곡의 정치론은 유교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으로 멀리는 공자의 덕치주의와 맹자의 왕도정치 영향을 받았다.

공자는 제자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공자는 경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로가 말하기를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자기를 수양하여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자로가 또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라고 물었다. 공자는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요순 임금도 그것을 힘들어했다.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수기(修己)’와 ‘안민(安民)’은 율곡의 정치론 중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 두 단어는 율곡이 지은 문장 곳곳에 등장한다. 예를 들면 『만언봉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수기’의 요령을 임금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몸을 닦는 데에는 그 요령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상의 뜻을 분발하여 삼대(三代)의 흥성했던 시대로 되돌려 놓기를 기약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학(聖學)을 힘써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의 공효를 다하는 것이고, 셋째는 편벽된 사심을 버리고 지극히 공평한 도량을 넓히는 것이고, 넷째는 어진 선비를 친근히 하여 깨우쳐 주고 보필해 주는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율곡은 안민의 요령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에는 그 요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심을 열어 신하들의 충정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셋째는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 풍조를 개혁하는 것이고, 넷째는 선상(選上)의 제도를 바꾸어 공천(公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고, 다섯째는 군정(軍政)을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기·안민의 덕치주의 외에 맹자의 왕도정치도 그의 정치론이 바탕에 깔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호문답』에서 율곡은 “인민의 도를 궁행하고 사람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정치를 베풀며, 천리의 바름을 다하는 것은 왕도이고, 인민의 이름을 빌려 권모의 정치를 펼치며 공리를 사사롭게 채우는 것은 패도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맹자가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霸者)이며, 덕으로 인의를 행한 자는 왕자(王者)’라고 규정한 왕도정치의 이념을 따른 것이다. (최정묵, 160쪽)

이렇게 율곡의 정치론은 유교의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그 이전에 도학정치를 주장하고 개혁 정치를 펼치다 실패한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율곡의 사상은 이후 조선의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암 송시열은 국가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주의 바른 마음, 공평한 마음을 역설했는데 율곡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최정묵, 157쪽)

2) ‘신하의 정치’ : 도통을 중시한 정치

유교 사상에서 혁명론은 백성이 지배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백성이 국왕의 소유물이나 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낸다. 조선시대에 임금은 유럽 절대주의 시대에 절대왕정에서 누렸던 절대적인 권력과 지위는 없었다. 기본적으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존재했으며 제도 운용상의 관습이나 『경국대전』 등 법전 규정 등으로 국왕이 국사에 대해 자기 멋대로 관철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였다. 혹시 어떤 임금이 일시적으로 무력에 의해 자의를 관철할 수 있어도 결국 민심의 이반이나 관료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굴복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반정에 의해서 국왕이 교체되기도 하였다. (정세영, 31쪽.)

선조 2년 1569년에 집필한 『동호문답』을 보면 율곡은 먼저 「임금의 도를 논함(論君道)」이라는 글을 쓰고 그다음에 「신하의 도를 논함(論臣道)」,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기 힘든 것을 논함(論君臣相得之難)」이라는 순서로 글을 이어간다.

그리고 율곡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기 힘든 점을 예로 들면서 서로 잘 만나기 어려운 것의 책임을 먼저 군주에게 구한다. 즉 그는 삼대 이후에 왕

도를 행한 임금에 없는데, 그동안 그런 왕도를 행한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도를 행하는 진유(眞儒, 참다운 유학자) 역시 임금에게 나가지 않았다고 하며 군주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그는 조선에서도 옛 도를 회복하지 못함은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진유'의 신하가 없기 때문에 왕도정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정재훈, 97) 왕도정치에서 신하의 존재가 중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러한 율곡의 정치론은 왕권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었던 유교적인 정치 환경에서 일반론적인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한 세대 먼저 활동했던 퇴계의 사상과 비교해 보면, 신하의 역할을 중시한 그의 주장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형찬은 율곡이 신하의 존재를 특히 강조한 점에 주목하여 율곡의 정치론을 퇴계의 정치론과 비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퇴계는 군왕의 정치를 강조하고 율곡은 신하의 정치를 강조하였다.(김형찬, 221) 나아가 '퇴계가 군왕의 정통성 확보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군왕 중심적인 정치를 강조한 데 비해, 율곡은 사실상 군왕과 신하의 협치'(김형찬, 230쪽)를 주장하였다.

율곡이 『동호문답』과 『만언봉사』에서 군왕과 신하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서술한 점을 퇴계의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와 비교해 보면, 퇴계는 임금의 위상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율곡은 신하의 역할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진육조소』에서 퇴계는 자신이 '비록 평소에 지혜도 부족하고, 나라 경영하는 정책에 어둡기도 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한 가지의 어리석은 뜻을 바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고 하며 선조 임금의 수양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하고 하면서,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을 들어 상세히 논하였다.

- 첫째, 계통을 중시하여 인(仁)과 효(孝)를 온전하게 할 것.
- 둘째, 참소(讒訴)를 막아 양궁(兩宮, 왕궁과 인순왕후의 궁)을 친하게 할 것.
- 셋째, 성학(聖學)을 돈독히 하여 정치의 근본으로 삼을 것.
- 넷째, 도술(道術, 유교의 가르침)을 밝혀 인심을 바로 잡을 것.
- 다섯째, 복심(腹心), 대신(大臣)을 미루어 이목(耳目), 대간(臺諫)을 통할 것.
- 여섯째, 수양과 성찰을 정성스럽게 하여 하늘의 사랑(天愛)을 받을 것.

첫째와 둘째 항목에서 퇴계는 계통을 중시하고 궁궐 내부의 단합을 강조하였다. 이는 당시 선조가 서자의 아들로 이복 삼촌인 명종의 왕위를 계승한, 불안정한 왕통을 가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퇴계의 고민을 보여준다. 즉 퇴계는 모든 정치적 행위가 임금으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그는 왕통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군왕이 왕실과 조정의 중심이 되고, 신하들(대신(大臣)과 대간(臺諫))을 활용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형찬, 226쪽)

반면에 율곡은 『동호문답』을 지어 임금에게 올릴 때 첫 번째 항목으로 군왕의 도를 논하고, 두 번째에 신하의 도를 논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주와 신하가 서로 잘 만나기 어려움을 논하였다. 그는 신하의 존재가 중요함을 이 항목들 외에도 그 뒤에 열거하는 여러 항목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만언봉사』에서도 율곡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정치의 핵심은 군왕이 신하를 신뢰하며 신하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 실질적인 정치에 힘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문제의 핵심은 임금이 신하를 신뢰하지 않고 또 신하들은 책임 의식이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김형찬, 229쪽)

1573년에 율곡은 경연의 자리에서 임금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신하 발언이 중요함을 이렇게 역설하기도 하였다.

“(전하께서) 반드시 귀를 기울여 널리 들어서 그 가운데 좋은 말을 가려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야만, 모든 신하가 나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임금의 몸에 모여들어 덕업이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율곡이 1575년에 집필한 『성학집요』는 이러한 입장이 더욱 발전되어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성학집요』는 『대학연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논리 전개 방식이나 관점은 전혀 다르다. 특히 『성학집요』는 신하의 입장, 혹은 더 넓게는 사대부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집필되었다. (정재훈, 104쪽)

율곡의 정치사상을 논한 정재훈은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성학집요』는 종래 중국의 제왕학 교과서였던 『대학연의』와는 군주관과 군신관계에서 크게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 『성학집요』에 제시된 군주관은 곧 군주를 군주 홀로의 독존(獨尊)적인 존재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중략) 『대학연의』에서 제시된 ‘성학(聖學)’이 군주 개인의 수신에 대한 논리로 그치고 한·당대를 포함한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정치적인 논리를 보완함으로써 완성되는데 비해, 『성학집요』에서는 철저히 군주에게 적용되는 논리를 사대부의 논리에 귀속시켰다.”(정재훈, 102쪽)

즉 『성학집요』는 군주를 사대부의 일원으로 보고 군왕이라도 사대부의 논리

를 따라야 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또 신하를 군주에게 선택당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택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군주는 자신의 수양을 통해서 성취한 인격으로 훌륭한 신하를 등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학집요』의 마지막 절에 배치한 ‘성현도통(聖賢道通)’ 항목에서 군왕의 왕통보다는 신하의 도통이 더 중요함을 역설한 율곡의 입장은 이후 예송논쟁에서 군왕도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왕실 예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인 측의 주장으로 이어졌으며 18~19세기에 세도를 형성하여 군왕의 권력을 약화하고 지식인 관료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형찬, 231쪽)

3) 여론에 의한 정치

율곡은 백성들의 생각과 신하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여론의 정치를 제안했다. 그가 말한 여론의 정치가 오늘날 민주적 여론정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한계를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조선 시대 당시로서는 극히 진보적인 주장이었다.

그는 국시의 정립을 위해 공론이 형성되어야 하고, 공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언로(言路)가 활짝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언로를 봉쇄하고 죄로써 그것을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언로 개방과 여론 정치를 주장했다.

그는 35세 때, 홍문관 교리 자격으로 임금에게 「옥당에서 올리는 시대의 폐단을 논함(玉堂陳時弊疏)」이라는 상소문에서 ‘언로를 넓혀서 여러 계책을 모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다. 이후 기회만 되면 이러한 여론 정치를 지속해서 제안하였는데, 「재난을 없애는 다섯 가지 계책」이라는 상소문에서도 그는 ‘언론을 열어서 사방의 훌륭한 의견을 정부에 모을 것’을 건의했다. (임옥균, 46쪽)

38세 때 선조 임금을 만난 경연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겸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사사로운 의견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르면 선을 행하는 근본이 되지만, 겸양만 부리고 분발하는 의지가 없으면 겸양이 도리어 병통이 됩니다. 전하께서 하신 말씀은 겸손하지만, 공론을 따르지 않거나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남을 그르게 여기는 것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남을 자기만 못하게 여기는 병통이 있으니, 신은 삼가

민망스럽습니다.

임금에게 사사로운 의견을 버리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공론을 따르도록 부탁한 것이다. 같은 해 어느 날 저녁에 열린 경연에서는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질책을 하기도 했다.

“전하께서는 말씀을 너무 적게 하십니다. 여러 신하의 말에 대해 조금도 답을 하지 않으시는데, 전하께서는 답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본래 물을 만한 것이 없기는 하지만, 들어와 모신 지 여러 날이 되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전하께서 잘 다스리려고 하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 신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신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임금의 생각을 들려주는 공론의 정치를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도 선조 임금의 태도가 바뀌지 않자 율곡은 그해 10월 임금과 만난 자리에서 좀 더 노골적인 비판을 이렇게 하기도 하였다.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한다면 좋은 말이 어디로부터 들어오겠습니까? 반드시 귀를 기울여 널리 들어서 그 가운데 좋은 말을 가려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야만, 모든 신하가 나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임금의 몸에 모여들어 덕업이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겸손하신 태도가 하교에는 나타나나 공론을 따르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옳다 하시고 남의 말이 틀렸다고 하심에 있어서는 도리어 남이 나만 못하다는 병통이 있으시니, 신은 삼가 민망하게 생각합니다.”(임옥균, 53쪽 재인용)

이렇게 율곡은 지속해서 공론에 따른 여론의 정치를 건의하였다.

4) 인(仁)에 의한 정치

율곡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인(仁)에 의한 정치, 즉 어진 정치보다 급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임금이 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제

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정치라고 하였다. (『율곡전서』, 「도적책」)

그리고 그는 정치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명함에 한계가 있으므로 어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통치자는 나라 안의 도처에서 지성으로 어진 사람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덕적으로 어진 사람이 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직책을 맡아 지도자의 부족함을 보완하면 백성과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 『만언봉사』에서 임금에게 인정을 펼칠 것을 이렇게 호소했다.

“맹자는 양 혜왕(梁惠王)이나 제 선왕(齊宣王)에게 왕도(王道)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인정(仁政)이 아니면 권하지 않았습시다. 대체로 양 혜왕이나 제 선왕의 자질을 가지고도 참으로 왕도를 실행하고 인정을 실시하기만 한다면 역시 삼왕(三王)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자가 그와 같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찌 큰소리치거나 좋아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자질이 매우 아름다우시어 인자하심은 백성을 보호하기에 충분하고, 총명은 간사함을 분별하기에 충분하고, 용맹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기에 충분합니다.”(『만언봉사』)

맹자의 인정에 대해서 임금에게 권하면서 선조 임금의 ‘자질이 매우 아름다우시어 인자하심은 백성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므로 결단을 내려서 인의 정치를 펼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상 국가론을 설파한 『동호문답』에서도 임금의 도리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의가 중심이 된 왕도정치를 제안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두 가지 경우도 그 정치방식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의(仁義)의 도리를 임금이 몸소 실천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고, 천리(天理)의 바름을 본받아 잘 실천하는 왕도(王道)가 그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인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권모술수의 정치를 베풀어 임금 자신의 사적인 공리(功利)를 이루는 패도(霸道)가 다른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인의 정치를 내걸고 백성을 속이는 권모술수의 정치는 패도의 정치이다. 율곡은 그런 정치를 지양하고 인의의 도리를 임금이 몸소 실천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왕도정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 그는 백성들의 의식을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어진 정치 외에는 없다

고 주장하고, 임금이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미루어 사람들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여 동물과 식물이 각각 제자리를 얻도록 하고 백성들이 산 사람을 양육하고 죽은 사람을 보내는데 미흡한 마음이 없도록 한다면 백성들이 예의로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하였다. (『율곡전서』, 「도적책」)

5) 붕당의 반대

율곡은 나중에 반대파들로부터 붕당 정치를 조장한 인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학자들의 분파 활동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는 조선 사회에서 당파 활동이 막 시작된 시기에 살았다. 그는 조선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간 사회가 막 벗어난 상황에서 유학자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장차 붕당이 만연하게 될 것을 매우 걱정하였다. 특히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던 유학자들 사이에서 분파활동이 가져올 폐단을 경계하며 사림의 결속을 도모하려고 노력했다.

1579년에 올린 소(「대사간을 사직하고 겸하여 동서(東西)의 당파(黨派)를 없앨 것을 진달한 상소」)에서 율곡은 붕당의 폐해를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지금 시사(時事)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이 많으나 우선 먼저 가장 절실하고 급한 것을 논하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예로부터 국가가 믿고 유지하는 것은 사림(士林)이라 합니다. 사림은 나라의 원기(元氣)라, 사림이 성하고 화합하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사림이 과격하고 분열되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지며, 사림이 패하여 다 없어지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니, 지나간 일이 사적(史籍)에 밝게 실려 있습니다. (중략)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흥하고 망함은 여기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사리로 보나 형세로 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사림은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들리건대, 동서(東西) 붕당(朋黨)의 설이 방금 큰 빌미가 되었다 하니, 이는 신이 깊이 근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같은 상소문에서 그는 당시 붕당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심의겸과 김효원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했음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임금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신이 근심하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사류는 패(敗)하는 것이 많고 이루는 것이 적었으니, 비록 지론(持論)이 순수하게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온 것이라 해도 오히려 소인들로부터 봉당이란 명목을 받아 죽고 귀양가는 것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하물며 지금 사류의 처사는 중도를 잃어서 참소와 이간이 틈을 타기 쉬우니, 어찌 오늘의 거사가 뒷날의 화가 될 징조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만일 소인이 있어 기회를 엿보다가 교묘하게 일망타진의 계략을 만들어 낸다면, 신은 과격해서 분파되었던 것이 패하여 다 없어지는 것으로 변하고 나라가 따라서 망할까 두렵습니다. (중략)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이 상소를 공경대신(公卿大臣)들에게 내리시어 상의하게 하소서. 신의 말이 만일 옳다고 하면 조신(朝臣)들에게 하교하시어 동인·서인의 구별을 씻어버리고 다시는 구별하지 말도록 하시며, 오직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이면 등용하고 어질지 못하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면 버리시며, 조정을 함께 한 선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다시는 의심하고 막힘이 없도록 하시며, 탁한 것은 내치고 맑은 것은 올려서 조정의 기강을 정숙하게 하시고, 혹시 자기의 의견만을 편벽되게 주장하여 공의(公議)를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제재하여 누르시며, 혹시 꼭 분쟁을 일으켜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들려는 자가 있으면 배척하여 멀리하소서.”

그는 사람의 파벌화가 또 다른 사화를 가져올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까지 하며, 봉당의 폐해를 걱정했다. 그래서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는 말 자체가 편을 가르고 봉당을 격화시킬 것이므로 언급 자체를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임옥균, 178쪽)

이렇게 그는 봉당의 폐단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자신도 동인에게 서인으로 지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으로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율곡의 정치론을 살펴봤는데, 율곡의 정치론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개혁을 중시하는 정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는 정치의 개혁, 경제 제도의 개혁, 교육의 개혁, 국방 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만언봉사』, 『동호문답』 등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06. 율곡의 개혁론)에서 상세히 다룬다.

04. 율곡의 개혁론

율곡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경장(更張)’의 시기로 보았다. ‘경장’이란 다시 새롭게 고쳐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거문고 줄을 팽팽하게 다시 고쳐 매는 것을 ‘경장’이라고도 한다.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묵은 제도와 법규를 다시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한다.

율곡은 특히 자신이 처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적폐가 계속 누적되어서 변법과 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았다. 조선 왕조는 개국한 지 200년 가까이 되어 관료들은 무사안일에 빠져 있으며 사림은 사화의 피해로 의기소침해 있었다. 율곡은 이러한 상황을 『만언봉사』 첫머리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중종반정 이후에) 기묘제현(己卯諸賢, 조광조 등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한 선비들)이 조금 큰일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참소로 참화를 입어 피와 살이 가루가 되었고, 계속해 일어난 을사사화는 기묘사화보다 더 참혹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사림(士林)은 경계하고 무서워서 뒤돌아보고, 숨을 죽이면서 구차하게 살아남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히 국사(國事)를 입에 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권세를 쥔 간신의 무리가 마음 놓고 제멋대로 하여,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구법(舊法)이라 하여 준수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방해되는 것은 신법(新法)이라 여겨 없애버렸습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요약하면 백성을 수탈하여 자기를 살찌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형세가 날로 쪼그라들고 나라의 근본이 날로 손상되어 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가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을 썼겠습니까?”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 안팎의 선비들이 기세를 잃고 침체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폐단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경장을 하고 변통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 국사를 논의하는 자들은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온 법도로 여기어 감히 경장(更張)하자는 의견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시의(時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왕(聖王)이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변통(變通)하는 현명한 자손이 없으면, 마침내는 반드시 폐단이 생깁니다. (중략) 우리나라 선대 임금들께서도 입법하신 당초에는 본디 그 법이 주도면밀하였으나, 200년이 지나오는 동안 시대도 변하고 일도 바뀌어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변통(變通)할 수는 있습니다. 하물며 그 뒤에 만들어진 잘못된 규

례(規例)이겠습니까? 다급하게 개혁하여 마치 불 속에서 타는 자를 구하고 물 속에 빠진 자를 구해주듯 해야 할 것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막다른 끝에 이르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통한다.’ 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시어 변통할 것을 생각하십시오.”(「만언봉사」)

울곡은 시급히 경장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위기에 빠질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래되어 모순된 법제를 고칠 것을 건의했는데, 예를 들면, 국가체제의 재정비, 공안과 군정 그리고 부세 제도의 개혁, **향촌 질서** 유지 및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향약의 실시 등이었다.

아울러 그는 다음과 같은 각종 폐단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동호문답』)

- 1) 친척과 이웃에게 대신 세금을 걷는 폐단
- 2) 궁중에 올리는 물건이 많고 무거운 폐단
- 3) 나라에 바치는 특산물을 대신 내는 제도의 폐단
- 4) 노동력 징발이 고르지 않은 폐단
- 5) 아전들이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폐단

이 중에서 아전들이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폐단을 살펴보면 울곡은 『동호문답』에서 “권력을 휘두른 간신들이 흐리고 어지럽힌 뒤로 위 아랫사람들이 오직 뇌물만을 일삼아 관직도 뇌물이 아니면 승진하지 못하고 소송도 뇌물이 아니면 판결이 안 나며 죄도 뇌물이 아니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료가 법도가 아닌 것만 배우고 아전들까지도 법조문을 가지고 농간을 부려 백성이 온갖 물건을 관청에 납부할 때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지 적은지도 계산하지 않으며, 오직 뇌물의 등급으로 취하거나 버리며, 심지어 관청의 일개 하인이나 종까지도 조금이라도 일만 맡고 있으면 금방 착취를 일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송이라는 중대한 일도 또한 교활한 아전의 손에 맡겨져 뇌물에 따라 잘잘못이 결정되니, 이것은 참으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망치는 고질병입니다.”라고 한탄하였다. 그리고 이런 폐단을 고칠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마땅히 모든 관료를 엄하게 단속하고 뇌물죄를 다스리는 법을 거듭 밝혀,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켜서 조정이 숙연해지고 사람마다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한 뒤에 침탈하고 뇌물을 받는 습관을 일절 금지하고, 숨기고 감춘 것을 적발

해 그 실정을 파악하며, 백성들의 호소를 허락하여 그 억울함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아전이나 사령의 무리가 뇌물을 받았거나 침탈하여 그 사실이 발각되면, 그 수량이 벼 1필 이상이면 온 집안을 다 귀양 보내는 법률로 모두 다스려 (두만강 부근) 6진의 빈 땅으로 귀양을 보내 채운다면 뇌물을 받는 습관만 완전히 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변방을 튼튼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뇌물죄를 엄히 다스려 백성들을 보호하고 벼 1필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온 가족을 변방에 귀양 보내 국방도 튼튼히 하자고 건의한 것이다.

울곡은 하급 관료인 아전들이 그렇게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들에게 농사짓는 것을 대신할 만한 봉록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관청의 아전들이 일정한 봉록을 위로부터 받아먹었는데 지금의 아전들은 따로 봉록이 없으니, 만일 침탈하지 않으면 배고픔과 추위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전들의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무료 봉사 때문이라고 보고 적절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대목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울곡은 각 분야별로 개혁해야 할 제도나 법규를 상세히 제안했는데, 간략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인, 35-186쪽 참조)

1) 신분제도의 개혁

울곡은 조선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길은 개혁뿐이라고 주장하고 했으나 그의 개혁 방안은 급진적,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실현할 수 있고 점진적인 방법을 제안한 것이었다. 신분제도도 기존의 체제 안에서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과거시험에 의한 인재 등용 방법은 불완전하고 미비한 점이 많다. 과거를 거치지 않은 선비에게도 관리가 되는 길을 열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백성들이 국가에 관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이나 군역(軍役)을 균등하게 지게하고 폐지할 수 있는 양역(良役)은 폐지하자. (여기에서 양역이란 원칙적으로 16세 이상 60세까지의 모든 양인(良人) 또는 양민(良民)의 남자(良丁)에게 부과하는 각종 신역(身役, 몸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

(3) 천민들에게도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특히 천민의 세금 납부 제도를 고쳐줄 것을 제안했다.

(4) 하급 관리(胥吏)가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과 함께 봉급 지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봉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제도적인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함을 주장했다.

(5) 이외에도 율곡은 신분층 사이에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천민을 면천시키고, 서얼에게는 신분을 올려 주거나 벼슬길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자고 주장했다.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천민이면 자식이 자동으로 천민이 되는 신분제도가 천민을 증가시키고 양민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2) 정치의 개혁

(1) 율곡은 당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치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강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강을 세우는 일이 정치의 급선무이며 이는 임금이 먼저 분발하여 큰 뜻을 품고, 관료들이 일시에 분발하여 기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연공에 따른 승진제도에 반대하고 능력에 따른 임용과 승진을 보장하고 인사제도를 효율적인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능력 있는 사람을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써야 하며, 서얼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발탁해서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불필요한 관직을 통폐합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폐정 혁신을 주도할 기관으로 경제사(經濟司)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왕실과 조정을 하나

로 보고 각종 조직과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 조직의 능률 향상을 꾀할 것을 제안했다.

(4) 지방행정의 혁신 정책으로 지방관리 선임을 엄격하게 하고, 수령에게 일정한 봉급을 지급하여 토색질할 요인을 원천적으로 없애며, 감사를 엄선하여 그 임기를 늘리고,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5) 율곡은 왕도정치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언로를 개방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론 수립을 제안하고 국정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며, 좋은 정책을 수집하여 타당한 것은 반드시 정치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3) 경제의 개혁

(1) 율곡의 경제개혁론은 ‘부국’의 실현과 ‘안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전자는 정부의 지출 축소와 수입 증대를 통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며, 후자는 백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그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2) 부국의 실현은 정부 지출의 축소, 정부 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국고 수입의 확대 등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안민의 실현은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물 중 합당하지 않는 물품은 폐지하고 합당하더라도 그 양을 줄여야 하며, 공물 납부 제도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세금과 부역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전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로 다른 가족이나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관들의 불법적인 착취를 근절하고 각종 세제를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4) 교육의 개혁

(1) 선비의 교육에 대한 개혁으로 도학을 존송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 출세를 지향하는 교육을 탈피할 것, 많은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개방할 것,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것, 그리고 교육기관과 과거 응시 혹은 관리 임용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2) 서민 교화에 대한 개혁으로 서민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향약을 진흥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한때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평생에 걸쳐 파주, 청주, 해주 등 여러 지역의 향약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5) 국방 제도의 개혁

(1) 사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령이나 전방의 장수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관찰사 및 절도사가 뇌물을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군관이 봉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졸을 착취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양역의 폐지, 임지가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 등을 제안했다.

(2) 허위로 만들어진 영터리 병적(兵籍)을 정비하고 병력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방 유생의 입대, 천민과 서얼의 병력 자원화, 병적에 누락된 장정의 색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3) 율곡은 또한 장졸의 정예화와 군비 확보를 통한 방위력 증강을 제안했다. 아울러 평소에 군사를 기르고 훈련하며, 병기와 전투마, 전함을 미리 마련해 둘 것을 제의했다.

05. 『울곡전서』

『울곡전서』는 울곡이 지은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14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시집은 박지화(朴枝華) 등이 편집하고, 문집은 박여룡(朴汝龍) 등이 성훈(成渾)의 도움을 받아 편집했다.

이전 1611년(광해군 3년)에 해주에서 목판으로 『울곡집』이 발간된 적이 있었는데 총 10권(시집 1권, 문집 9권)으로 구성된 문집이었다. 이후 1682년(숙종 8년)에 박세채(朴世采)가 울곡이 쓴 문장 중 빠진 것들을 더 모아서 속집 4권, 별집 4권, 외집 2권을 간행한 바 있었다.

다시 1742년(영조 18년)에 이재(李穡)가 시집, 문집, 속집, 외집, 별집을 하나로 합하고,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을 추가해 1749년에 『울곡전서』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은 활자본으로 총 23권 38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814년(순조 14년)에 해주에서 습유(拾遺) 6권과 부록의 속집이 추가되어 간행되었다. 이때 발간된 판본이 현재 우리가 보는 총 44권 38책의 『울곡전서』이다.

현대 들어와 1958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울곡전서』를 영인, 간행하여 보급했다. 이 판본은 한문 원문만 들어 있다. 1961년 고려대학교 한국고전국역위원회에서 『울곡전서』의 성리학에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註)를 붙였다. 이를 편집해 발간한 것이 『울곡성리학전서』이다.

이윽고 1968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고전국역 사업의 일환으로 『국역울곡집』을 발간했다. 현재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운영하는 사이트(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에서 한글로 번역된 『울곡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일러두기를 보면 “대동문화연구원(大東文化研究院)에서 간행된 《울곡전서(栗谷全書)》를 대본으로 삼았고, 그중 사상을 다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 번역하여 I·II집으로 나누었다.”라고 되어있다. 전문 번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번역되어 있다.

『울곡전서』의 권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 1 : 사(辭) 2편, 부 3편, 시 132수

권 2 : 「호당야좌(湖堂夜坐)」, 「유삼청동(遊三清洞)」 등 176수의 시

권 3 : 「논요승보우소(論妖僧普雨疏)」, 「논윤원형소(論尹元衡疏)」, 「사정언소(辭正言疏)」, 「간원진시사소(諫院陳時事疏)」, 「육조낭관논심통원소(六曹郎官論沈通源疏)」, 「옥당진시폐소(玉堂陳時弊疏)」, 「진미재오책차(陳弭災五策筭)」 등

11편의 소(疏)와 차(劄)

권 4 : 「옥당논을사위훈차(玉堂論乙巳僞勳劄)」, 「의진시폐차(擬陳時弊劄)」, 「논봉당소(論朋黨疏)」 등 8편

권 5 : 「옥당진계차(玉堂陳戒劄)」, 「만언봉사(萬言封事)」, 「진해서민폐소(陳海西民弊疏)」 등 8편

권 6 : 「청물과애소(請勿過哀疏)」, 「옥당논군덕사사차(玉堂論君德四事劄)」, 「진성학집요차(進聖學輯要劄)」, 「사간원청면학친현신차(司諫院請勉學親賢臣劄)」 등 8편

권 7 : 「사대사간겸진세척동서소(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사간원걸변통폐법차(司諫院乞變通弊法劄)」, 「사간원청진덕수정치(司諫院請進德修政劄)」, 「진시폐소(陳時弊疏)」, 「진시사소(陳時事疏)」, 「사이조판서소(辭吏曹判書疏)」 등 17편

권 8 : 「청혁양종선과계(請革兩宗禪科啓)」, 「진황해도민폐계(陳黃海道民弊啓)」, 「복명후진일로민폐계(復命後陳一路民弊啓)」, 「육조계(六條啓)」 등 20여편의 계와 2편의 의(議)

권 9 : 「상퇴계이선생(上退溪李先生)」, 「여기명언대승(與奇明彦大升)」, 「답박화숙순(答朴和叔淳)」, 「답성호원혼(答成浩原渾)」 등 서 17편

권 10: 「답성호원(答成浩原)」 등 9편

권 11 : 「답송운장익필(答宋雲長翼弼)」 등 39편

권 12 : 「답정계함철(答鄭季涵澈)」, 「여이몽응제신(與李夢應濟臣)」 등 30편. 이 중에는 사칠론(四七論)이나 인심도심(人心道心) 등 성리학 주제 및 예제(禮制)와 관련된 문장이 많음.

권 13 : 「본국제세제황제문(本國祭世帝皇帝文)」, 「본국청개종계주문(本國請改宗系奏文)」, 「예조답대마도주서(禮曹答對馬島主書)」, 「기우제문(祈雨祭文)」 등 11편의 응제문과 「성학집요서(聖學輯要序)」, 「격몽요결서(擊蒙要訣序)」 등 7편의 서(序), 「구용첩발(九容帖跋)」, 「학부통변발(學部通辨跋)」 등 5편의 발, 「희천양현사기(熙川兩賢祠記)」, 「보인당기(輔仁堂記)」 등 9편의 기

권 14 : 「인심도심도설(人心道心圖說)」, 「극기복례설(克己復禮說)」 등 설 6편과 「부자문장찬(夫子文章贊)」이라는 찬 1편, 「사암금명(思菴琴銘)」 1편, 「제퇴계선생문(祭退溪先生文)」, 「제청송선생문(祭聽松先生文)」, 「성대곡사우제문(成大谷祠宇祭文)」 등 제문 16편, 「기자실기(箕子實記)」, 「김시습전(金時習傳)」, 「이씨감천기(李氏感天記)」, 「논심성정(論心性情)」, 「기대학소주의의(記大學小註疑義)」, 「회재대학보유후의(晦齋大學補遺後議)」, 「역수책(易數策)」, 「천도책(天道策)」, 「공맹언성도군려의(孔孟言性道軍旅疑)」 등 18편의 잡저

권 15 : 「동호문답(東湖問答)」, 「학교모범(學校模範)」,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 「은병정사약속(隱屏精舍約束)」, 「시정사학도(示精舍學徒)」, 「문헌서원학규(文憲書院學規)」 등

권 16 : 「서원향약(西原鄉約)」, 「해주향약(海州鄉約)」, 「사회계약속(社會契約束)」 등 잡저 5편

권 17 : 신도 비명 8편과 묘갈명 9편

권 18 : 「정암조선생광조묘지명(靜菴趙先生光祖墓誌銘)」 등 14편의 묘지명과 7편의 행장

권 19~26 : 「성학집요(聖學輯要)」

권 27 : 「격몽요결(擊蒙要訣)」, 「제의초(祭儀鈔)」

권 28~30 : 「경연일기(經筵日記)」

권 31과 권 32 : 「어록(語錄)」. 김진강(金振綱), 박여룡 등이 율곡의 말을 기록한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문집에 실려 있는 이이의 말을 수집해 놓은 것

권 33 : 부록. 세계도(世系圖), 연보 상(上)

권 34 : 연보 하(下), 문인록(門人錄)

권 35 : 문인 김장생(金長生)이 쓴 행장

권 36 : 대제학 이정구(李廷龜)가 지은 시장(諡狀)과 영의정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신도비명

권 37 : 「묘표음기(墓表陰記)」

권 38 : 「제가기술(諸家記述)」, 「전후변무장소(前後辨誣章疏)」 등

권 33~38 : 부록

권 39~44 : 습유(拾遺). 습유란 잃은 물건을 줍는다는 뜻으로 빠진 글을 찾아서 보충한 것을 말함.

- 습유 권 1 : 부 5편, 시 202수

- 습유 권 2 : 소와 차 7편, 계 47편, 의(議) 3편, 서(書) 16편

- 습유 권 3 : 28편의 서(書), 30편의 응제문, 7편의 서(序)

- 습유 권 4 : 「제생상읍의(諸生相揖義)」, 「소아수지(小兒須知)」, 「논사칠설(論四七說)」 등 잡저 15편

- 습유 권 5 : 「신선책(神仙策)」, 「기도책(祈禱策)」, 「절서책(節序策)」, 「수요책(壽夭策)」, 「시폐칠조책(時弊七條策)」 등 잡저 5편

- 습유 권 6 : 잡저 12편, 묘지명 1편

이경동은 「조선후기 율곡 이이 문집 편찬의 추이와 의의」(『유학연구』52,

2020.8)라는 논문에서 『율곡전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기나긴 율곡문집 편찬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율곡 사후에 율곡의 제자들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율곡의 학문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문집의 간행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스승 율곡을 높이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2) 『율곡집』은 율곡이 사망한 뒤에 성혼 등이 편찬을 시작하여 제자인 박여룡과 김장생이 1611년에 간행하였다.

3) 17세기 후반에 박세채는 『율곡집』에 수록되지 못한 자료를 정리하여 『율곡속집』, 『율곡외집』, 『율곡별집』의 편찬에 착수했다. 송시열계는 『율곡별집』에 실린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갑술환국 이후에 『율곡별집』을 수정하였다.

4) 송시열의 학문을 계승한 노론계는 기존에 간행된 문집들과 별본들을 재편집하여, 이재가 1744년에 38권으로 된 『율곡전서』를 간행을 추진했다. 이 문집은 송시열로부터 계승된 율곡 인식을 바탕으로 편성된 것이다.

5) 1746년에 이재의 제자인 홍계희가 영조의 명을 받아 원집 38권과 습유 6권을 추가 구성하여 『율곡전서』를 간행하였다. 습유에는 이재가 제외한 문장이나 검증이 되지 않는 문장도 모두 수록했다.

『율곡전서』는 이렇듯 수많은 유학자가 참여하여 만들어 낸 문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가적 지원이 있었고 장기간에 걸친 율곡 제자들의 정성이 아우러진 작품이었다.

06. 율곡의 저서

율곡의 저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학집요』, 『격몽요결』, 『동호문답』, 『만언봉사』가 있다. 이들 서적은 별도의 항목으로 소개하고 여기서는 『경연일기』, 『기자실기』, 『김시습전』, 『학교모범』, 『소학집주』, 그리고 『순언』을 소개한다.

1) 『경연일기(經筵日記)』

율곡이 명종(明宗)부터 선조(宣祖) 때까지, 즉 1565년부터 1581년까지 17년간 경연(經筵)에서 강론한 내용을 적은 책이다. 경연(經筵)이란 임금에게 유교의 경전이나 역사서 등을 강론하는 일을 말하는데, 경유(經帷)라고도 한다. 경연의 목적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이상 정치 실현을 위한 것이었으나 왕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예종 때 경연이 처음 도입되었으나 무신 집권 시기에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유교가 중시되면서 경연이 임금의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경연의 자리에서 임금은 신하들과 유교의 경전이나 역사 서적을 읽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현안 정치 문제를 협의하기도 해 경연이 정치의 중요한 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사용된 강의 교재는 기본서로 사서와 오경 및 역사서인 『자치통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있었다. 이 밖에 『성리대전(性理大全)』, 『근사록(近思錄)』, 『소학』, 『심경』, 『대학연의(大學衍義)』, 『정관정요(貞觀政要)』, 『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이 사용되었다.

강의 방식은 한 사람이 교재의 원문을 음독한 뒤, 번역하고, 설명 하고 나면, 왕이 질문을 하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충 설명을 하였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함께 참석한 관료들과 정치 문제를 협의하기도 하였다.

태조는 경연 청을 설치하여 경연을 시행했고, 세종은 즉위한 뒤 20여 년 동안 매일 경연에 참석했으며, 성종도 재위 25년 동안 매일 세 번씩 경연에 참석했다. 세조와 연산군 시기에는 경연이 잠시 폐지되기도 했으나 곧 부활하여 고종 때까지 존속하였다.

친필로 쓴 『경연일기』 원본은 6·25 등을 거치면서 일부 유실된 부분도 있으나 다른 판본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율곡전서』 28권에서 30권까지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대동야승』 권 14~권 15에도 수록되어 있다.

『경연일기』에는 율곡이 경연 참여해서 강연한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요

사건과 인물에 관한 상세한 기록도 포함하고 있다. 숙종 시대 이후에는 따로 『석담일기(石潭日記)』라는 이름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석담일기』 1권은 1565년(명종 20년) 7월에서 1571년(선조 4년)까지, 2권은 1572년에서 1576년까지, 3권은 1577년에서 1581년까지의 경연 내용이 실려 있다.

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이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에 『석담일기』가 상하권으로 구분되어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문이 공개되어 있다.

『석담일기』 상권 맨 첫 부분 (명종대왕 20년 7월 13일 자) 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7월 13일. 문정왕후의 상(喪)이 발인하려 할 때 큰비가 내렸다. 예조 판서 윤춘년이 백관(白官)들은 말을 타고 관을 따르게 하기를 제안했다. 대신 가운데는 이러한 제안을 찬성하는 이도 있었으나,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대여(大輿)를 따르는 것은 옛날의 예가 아니다.”라는 임금의 전갈이 있어 의논은 그것으로 끝났다.

15일. 하관할 때 임금이 병환으로 대여를 따르지 못했다. 우리 왕조의 예문(禮文)에, 만일 임금이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면 신주를 세울 때 반드시 삼공(三公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헌관(獻官)으로 하여 임금을 대신 행례하게 되어 있다. 이때 좌의정 심통원과 우의정 이명이 산릉에 있었는데, 예문을 다시 상고해 보지 않고 이조로 하여금 참찬 송기수를 차출하여 헌관으로 하니, 식자들이 예가 아니라고 나무랐다.

28일. 졸곡(卒哭)에 임금과 백관들이 모두 흑립(黑笠)을 쓰니, 식자들이 길례(吉禮)를 따르는 것이 빠름을 한탄하였다. 대개 조선 왕조의 상례가 비록 하은주 삼대의 제도에 모두 합치하지는 않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자못 상세하여 한 나라 혜제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듯이 율곡의 『경연일기』에는 경연 현장에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궁성을 출입하면서 율곡이 듣고 본 여러 가지 일들과 고금의 다양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생각도 함께 담았다.

1575년(선조 8년)의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선조 임금의 면전에서 임금을 질책하는 내용도 실려있다. 『성학집요』를 임금에게 올렸을 때의 이야기다.

“이이가 『성학집요』를 올리고 이어서 글을 올려 위학(爲學)·위정(爲政)의 도리를 극진히 논하였더니, 임금이 답하기를, ‘올린 『성학집요』를 살펴보니 치도

에 크게 도움이 되니 심히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이이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을 뜻이 간절하여 경전과 역사책에서 학문과 정사에 절실한 것을 가려 뽑아 차례를 나누어 수기(修己)·치인(治人)으로 순서를 만드니 대개 5편이었다. 책이 이루어져서 임금에게 올렸더니 임금이 그 이튿날 경연에 나와 이이에게 이르기를, “그 글이 심히 절실하니, 이것은 부제학(울곡)의 말이 아니라 곧 성현의 말씀이니, 백성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있을 것이다. 다만 나 같은 불민한 임금으로는 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하였다. 이이가 일어났다가 다시 옆드려 아뢰기를, “주상께서는 매양 이러한 하교가 하시니 신하들이 극히 답답합니다. 전하께서 자질이 뛰어나셨으니, 성학(聖學)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건대, 핑계 대지 마옵고 독실한 뜻으로 분발하시어 덕을 이루게 하십시오.”

2) 『기자실기(箕子實記)』

1580년에 울곡이 집필한 것으로 기자(箕子) 조선 관련 기록이다. 울곡은 윤두수의 『기자지(箕子志)』를 읽고 실망하였는데, 잡다한 자료만 일정한 체계 없이 늘어놓아 기자에 대한 전체적인 면모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새롭게 정리하여 집필했다.

『기자실기』 맨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윤두수의 『기자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있다.

“윤공 두수(尹公斗壽)가 일찍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중국 천자에게 조현(朝見) 하였다. 중국 조정의 관리들이 기자가 한 일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여 왔다. 윤공은 그것에 답하지 못함을 민망스럽게 여겼다. 돌아온 뒤에 널리 경·사·자·서(經史子書)의 책들을 참고하여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고 성현이 논하신 것과 그 이하 시인(詩人)들이 읊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워 모아 서책을 만들어 책 이름을 『기자지(箕子志)』라고 하였으니, 그 공로가 참으로 컸고 후학에게 또한 지극히 좋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겠다.

다만 생각되는 것은 경전을 뒤섞어 편찬하였으므로 계통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이가 이에 외람됨을 헤아리지 않고서 『기자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골라서 요약하여 한 책을 만들고, 나라를 세운 경과와 세계(世系)며 지나온 연수등을 대략 서술하여 책 이름을 『기자실기(箕子實紀)』라 했다. 읽기에 편리하기를 바란다.”

『기사실기』의 분량은 아주 적어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이 200자 원고지로 38매, A4용지로 5장 정도다.

주요 내용은 기자가 한반도로 와서 동이족을 교화시키고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이야기이다. 울곡은 우리나라를 ‘소중화(小中華)’로 파악하였으며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기자에 대해 서술했다.

그동안 기자조선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기자가 망명하여 우리나라에 건너왔다는가, 기자조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김시습전(金時習傳)』

1582년 울곡이 김시습(金時習, 1435년~1493년)에 대해서 지은 전기이다. 『울곡전서』 14권의 잡저에 실려 있다.

김시습은 조선 초기에 활동한 문인이자, 학자이며 불교 승려였다. 한성부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강원도 강릉에서 지낸 적이 있으며 그의 본관 역시 강릉이다. 호는 매월당(梅月堂)이며 불교 법명은 설잠(雪岑)이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은둔 생활을 하다 승려가 되었다. 이후에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전국을 방랑하면서 글을 지었다.

울곡은 『김시습전』에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직후의 김시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시습의 나이 21세였다. 삼각산에서 글을 읽다가 서울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그 소식(단종 손위遜位)을 듣고 즉시 문을 닫아걸고 3일 동안 바깥출입을 하지 않다가 방성통곡한 다음에 읽고 쓰던 서책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고, 광기를 일으켜 뒷간에 빠졌다가 도망하여 불문(佛門)에 의탁하고 승명(僧名)을 설잠(雪岑)이라 하였다.

그의 호는 여러 번 바뀌어 청한자(淸寒子)·동봉(東峰)·벽산청은(碧山淸隱)·취세옹(贅世翁)·매월당(梅月堂)이라 하였다. 그의 생김은 못생기고 키는 작았으나 뛰어난게 호걸스럽고 재질이 영특하였으며 대범하고 솔직하여 위의(威儀)가 없으며 강직하여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했다. 시세(時世)에 분개한 나머지 울분과 불평을 참지 못하였고, 세상을 따라 어울려 살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드디어 육신에 구애받지 않고 세속 밖을 방랑하여 우리나라의 산천치고 그의 발

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김시습전』은 율곡이 지은 유일한 전기이다. 율곡도 어린 시절을 강릉에서 보냈으며 불교에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시습에 대해 깊은 공감을 가지고 이러한 전기를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율곡은 김시습과 관련하여 일화로 전래되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하여 사람들이 김시습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4) 『학교모범(學教模範)』

1582년(선조 15년)에 율곡이 왕명을 받아 학교와 가정, 사회생활의 규칙을 정하여 저술한 규정집이다. 당시 율곡은 대제학으로 재직하던 때였는데 관학 교육을 위해 저술했다.

율곡은 선조가 통치하던 당시 상황을 위로는 조정엔 인재가 모자라서 벼슬에 빈자리가 많고 아래로는 풍속이 날로 퇴폐하여 윤리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교육을 올바로 세우고, 참교육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논하였다. 그는 특히 이 책에서 잘못된 지난날의 습속을 제거하고 선비의 기풍을 크게 진작시키자고 주장했다.

책 내용은 모두 16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생활과 가정 및 사회생활의 규정이 서술되어 있다. 유교 정신에 뿌리를 둔 전통사회의 교육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뜻을 세움(立志)
- ② 몸가짐(檢身)
- ③ 글 읽기(讀書)
- ④ 말을 삼가는 것(慎言)
- ⑤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存心)
- ⑥ 아버이를 섬김(事親)
- ⑦ 스승을 섬김(事師)
- ⑧ 벗을 택함(擇友)
- ⑨ 가정생활(居家)

- ⑩ 사람을 접함(接人)
- ⑪ 과거에 응시하는 것(應舉)
- ⑫ 의를 지킴(守義)
- ⑬ 충직함을 숭상함(尙忠)
- ⑭ 공경을 돈독히 함(篤敬)
- ⑮ 학교생활(居學)
- ⑯ 글 읽는 방법(讀法)

참고로 ‘글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여러 유생이 학당에 일제히 모여 문묘에 배알하고 읍하는 예를 마친 뒤 자리를 정하고 앉는다. 스승이 있으면 북에 앉고 여러 생도는 삼면에 앉는다. 장의[掌議, 조선시대 성균관유생들의 자치기구인 재회(齋會)의 임원]가 소리를 높여 『백록동교조』 또는 『학교모범』을 한 번씩 읽는다. 장의가 유교 시에는 유사 혹은 글을 잘 읽는 자가 대리한다. 그리고 나서 서로 토론하며 실질적인 공부로써 권면하고, 스승이 있으면 스승에게 질문한다. (중략)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로 질병이 있거나 시골에 갔거나 기일을 당한 외에 사고를 핑계하고 참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두 번이면 1개월 동안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도 결석하면 스승과 선배에게 고하여 체벌을 의논한다.”

5) 『소학집주』

율곡은 『소학』을 아주 중요한 유교 경전으로 평가하고 『소학』 관련 주석서를 모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라고도 불린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그는 『소학』을 『대학』,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오서(五書)’라고 부르고 글을 배우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였다.

『격몽요결』(「독서장(讀書章)」)에서 율곡이 ‘오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학』을 읽어 부모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웃

어른에게 순종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과 친하게 지내는 도리를 하나하나 자세히 음미하여 힘써 행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대학』 및 『대학혹문(大學或問)』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를 하나하나 참으로 알아 내어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는 『논어』를 읽어서, 인(仁)을 구하고, 인격 수양을 위한 학문을 하고, 본원(本原)을 함양하는 공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생각하여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맹자』를 읽어서, 의리(義利)를 밝게 분별하는 것과 인욕(人欲)을 막고 하늘의 이치(天理)를 보존하는 학설에 대해 하나하나 밝게 살펴서 이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다음에는 『중용』을 읽어서, 성정(性情)의 덕(德)과, 이치를 미루어 아는 의미와 만물이 길러지는 오묘한 이치를 하나하나 음미하고 찾아내어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소학』은 여러 경전의 내용 가운데에서 어린 학생들이 알아야 할 일상생활의 예절과 수양을 위한 각종 격언 및 충신·효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저자는 송나라 주자로 알려졌지만 실지로는 1187년(남송 순희 14년)에 주자의 제자 유자징(劉子澄)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책이다.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편은 경전을 인용한 개론에 해당하는데 입교(立敎, 교육의 원칙), 명륜(明倫, 윤리를 밝힘), 경신(敬身, 몸을 공경함), 계고(稽古, 옛 도를 살펴봄. 즉 앞의 기본 강령에 부합하는 사례 소개)로 나뉘어 있으며, 외편은 실지 사례를 소개한 가언(嘉言, 아름다운 말씀 즉 격언과 교훈), ‘선행(善行, 훌륭한 행실)’으로 나뉘어 있다.

이렇듯 『소학』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소개하고 학문의 토대를 닦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하는 필수적인 책이었다. 일반적으로 유교에서는 ‘사서’만을 중시하였지만 율곡은 『소학』까지를 포함하여 ‘오서’라고 부르고 중시했다.

『소학집주』는 조선 최초로 『소학』 주석서를 집대성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소학』 연구서나 학술서는 아니고 『소학』을 읽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실용서에 가깝다. 율곡이 사용한 기왕의 『소학』 주석서는 하사신(何士信)의 『소학집성(小學集成)』, 오눌(吳訥)의 『소학집해(小學集解)』, 진조(陳祚)의 『소학집해정오(小學集解正誤)』, 진선(陳選)의 『소학증주(小學

增註』, 정유(程愈)의 『소학집설(小學集說)』 등이다. 기본적으로는 왕오의 『소학집주대전』을 저본으로 하였다. 이들 서적에 나오는 주석을 충실히 전하는 입장에서 편찬되었다.

김경남의 연구(「울곡 이이의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의 저본 및 편찬 방법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소학집주』의 서술 체제는 정유의 『소학집설』을 따랐지만 내용이나 형식에서는 『소학집주대전』에 크게 의존하였다.

울곡은 10곳에만 간략하게 주를 달았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앞선 주석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울곡의 『소학집주』는 이후 조선의 유학자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다. 1612년에 조정에서 초간한 뒤, 1694년에 숙종이 서문을 붙이고 제자 김장생(金長生)이 고증을 더해 새로운 체재로 간행되었다. 이후 조선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학』 주석서이자 학습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 글을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유교적인 윤리관을 체득하는 수신서(修身書)로 장려되었으며, 향교와 서원, 그리고 서당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이 『소학집주』를 가르쳤다.

6) 『순언』

울곡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유학과 관련된 문구를 발취하여 주석을 붙이고 풀이하였는데 이것이 『순언(醇言)』이다. 부제는 ‘노자초해구결(老子鈔解口訣)’이다. ‘노자의 책 일부를 발취하여 구결(口訣, 토)을 달고 해설하였다.’라는 뜻이다. ‘순(醇)’이란 글자는 진하다, 변하지 않는다, 혹은 다른 것과 섞임 없이 순수하다는 뜻이다. ‘순언’은 그러므로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발문을 지은 홍계희(洪啓禧, 1703~1771)는 충청도 관찰사로 연산(連山, 충남 논산군 연산면)을 지날 때에 김집(金集)의 후손에게서 김집이 필사해 둔 『순언』을 우연히 구해보고 멸실될까 걱정하여 몇 권을 활자로 찍었다고 한다.

그는 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 한유는 순자의 학문이 몹시 순수하나 약간의 병통이 있다고 하여 유학의 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을 삭제한 뒤 성인의 서적에 덧붙이려 하면서 ‘이것 역시 공자의 뜻에 합치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이 책을 짓고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은 아마도 이것에서 취하신 듯하다. 내가 본문을 살펴보니 경전에

이반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다섯에서 셋은 버렸으니, 선생께서 택한 것이야말로 순수(醇)하다고 해도 될 것이다. (昔韓愈以荀氏爲大醇而少疵，欲削其不合者，附於聖人之籍，曰亦孔子之志歟。先生編書命名之意，或取於此耶。啓禧攷本文，蓋去其反經悖理者五之三介，其取者誠不害乎謂之醇也.)”

노자의 『도덕경』은 도가의 책자로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멀리 해야 하는 책으로 인식되었으나 율곡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도덕경』을 읽고 유학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순수한 내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순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인이 쓴 최초의 『도덕경』 주석서로 알려져 있으며,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도가 철학을 순수하게 학문인 관점에서 연구하여 조선시대의 도가 철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성과로 평가되기도 한다. 박세당(朴世堂)의 『신주도덕경(新註道德經)』, 서명응(徐命膺)의 『도덕지귀(道德指歸)』, 이충익(李忠翊)의 『담로(談老)』, 그리고 홍석주(洪奭周)의 『정로(訂老)』 등에도 이 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인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홍계희의 발문(跋文)

- 제1장 천도조화(天道造化) : 도즉태극(道卽太極)
- 제2장 도덕(道德) : 최상의 존귀함(無對之尊)
- 제3장 본체(本體)·묘용(妙用) : 무위(無爲)·무불위(無不爲)
- 제4장 심체(心體) : 무용(無用)
- 제5장 현덕(玄德) : 지성연미(至誠淵微)의 덕
- 제6장 일손(日損) : 본연지성(本然之性)
- 제7장 입도성덕(入道成德) : 절제(齋)
- 제8장 포일(抱一) : 무아(無我)
- 제9장 자지자승(自知自勝) : 지실의리(智實義理)
- 제10장 지족지지(知足知止) : 안어성명(安於性命)
- 제11장 견천도(見天道) : 구방심(求放心)
- 제12장 상족(常足) : 응용무궁(應用無窮)
- 제13장 삼보(三寶) : 자(慈), 검(儉), 겸(謙)
- 제14장 유약(柔弱) : 인복(仁覆)
- 제15장 공성신퇴(功成身退) : 검(儉)
- 제16장 천위본(賤爲本) : 고귀(高貴)

- 제17장 상선약수(上善若水) : 실근어도(實近於道)
 제18장 부쟁지덕(不爭之德) : 자유겸하(慈柔謙下)
 제19장 도은무명(道隱無名) : 체용일원(體用一源)
 제20장 정중(靜重) : 절제(齋)
 제21장 청정(淸靜) : 박연(泊然)
 제22장 현동(玄同) : 묵이지지(默而識之)
 제23장 함덕지후(含德之厚) : 성일무위(誠一無僞)
 제24장 전덕지효(全德之效) : 전진생리(全盡生理)
 제25장 체도(體道) : 무아도일(無我道一)
 제26장 수덕(修德) : 건중건극(建中建極)
 제27장 부쟁(不爭) : 순리무사(順理無私)
 제28장 습명(襲明) : 종용중도(從容中道)
 제29장 무상심(無常心) : 선신(善信)
 제30장 신명(神明) : 대대(對待)
 제31장 무위교화(無爲教化) : 지극(止極)
 제32장 무위지익(無爲之益) : 절제(齋)
 제33장 과이물강(果而勿強) : 치인(治人)
 제34장 승이불미(勝而不美) : 무심(無心)
 제35장 도이천하(道莅天下) : 수명(修明)
 제36장 수기(修己) : 신시선종(慎始善終)
 제37장 부쟁(不爭) : 요종진변(要終盡變)
 제38장 천도무친(天道無親) : 휴영익겸(虧盈益兼)
 제39장 피갈회옥(被褐懷玉) : 지선(至善)
 제40장 대도심이(大道甚夷) : 솔성지도(率性之道)

『도덕경』의 총 81장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 40장으로 축소하여 재구성했다. 원문에 토를 달았으며 자구마다 상세한 주석을 붙였다. 각 장의 끝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요약해 놓았다.

1~3장은 도체(道體), 4장은 심체(心體), 5~35장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36장은 시종(始終), 37~38장은 천도(天道), 39~40장은行道(行道)를 설명했다. 말하자면 노자의 『도덕경』을 『대학』의 수기치인 구조로 재편성하였다.

율곡은 『순언』에서 노자 사상과 유교 사상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노자와 공자가 모두 하나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달리 말하면 여러 유학자의 학설을 근거로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노자

를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노자의 근본적인 입장은 결국 유교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도가사상의 핵심 사상을 유교에 통합시키려고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종성은 이러한 『순언』의 유교적 성격에 대해 「율곡의 『순언』에 반영된 『성학집요』의 특성과 의의」(『율곡학연구』39, 33쪽)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율곡은 유학적 지식인답게 『노자』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유학적 관점을 기초로 풀이하였다.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수기치인이다. 요컨대 『순언』은 수기치인의 맥락을 통해 『노자』를 해석한 저술로서, 유가 철학과 노자 철학의 상호 접점의 정신을 확인하고자 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순언』의 전반부는 수기론의 내성학(內聖學)의 특징을, 그리고 후반부는 치인론의 외왕학(外王學)의 특징을 위주로 편집되었다. 이러한 점은 『순언』이 『성학집요』의 형식상 체계와 내용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가와 도가의 학문적 회통을 모색한 구체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율곡이 『순언』 집필 전에 발표한 『성학집요』의 수기·치인의 사상이 『순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율곡전서』나 여타 다른 율곡의 문집에서 이 『순언』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노자 사상은 이단으로 경계하였기 때문에 후손이나 제자들이 율곡의 『순언』을 의도적으로 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07. 『성학집요』

『성학집요』는 1575년에 율곡이 임금의 배움을 위해 저술한 서적이다. 정치 사상서이며 제왕학을 다룬 철학 서적이기도 하다. 현명한 신하가 임금에게 성인의 학문을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율곡은 홍문관 부제학이었는데 유교 경전과 역사 서적 가운데 군주가 학문을 닦고 정사를 돌보는 데 있어서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문장을 묶어 5편으로 차례를 정해 나누고 설명을 붙인 것이다.

『율곡전서』 제19권에서 26권까지 『성학집요』가 수록되어 있다. 『성학집요』 서문에서 율곡은 다음과 같이 집필 목적을 소개했다.

“생각건대, 도는 오묘해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글로써 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에 도가 이미 분명하고도 빠짐없이 적혀 있으니, 글로써 도를 구하면 이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근심이 되는 것은 그 책의 규모가 너무도 방대해서 요령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대의 현인이 먼저 『대학』을 드러내어 규모를 잡았습니다. 성현의 천 가지 계책과 만 가지 교훈이 모두 이 『대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이 책이야말로 요령을 잡는 법을 잘 보여줍니다. (중략)

이에 다른 일을 덮어 두고 사서와 육경, 그리고 앞선 유학자들의 학설과 역대의 역사서까지 깊이 탐색하고 널리 찾아서, 핵심이 되는 것을 수집하고 차례를 분류하고 번다한 것을 삭제하여 요점을 잡았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반복해서 수정하여 두 해에 걸쳐 모두 다섯 편을 편성하였습니다.”

율곡은 『성학집요』를 구상할 때, 위의 인용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학』을 중시하여 그것을 기본 지침으로 삼았다. 그는 성현들의 모든 계획이 다 『대학』의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대학』을 ‘덕(德)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의 기본 이념에 근거하여 『성학집요』의 내용을 구성했다.

서문에는 5편으로 구성된 『성학집요』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간략히 정리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편 통설(統說) :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합하여 말한 것. 『대학』에서 말한 밝은 덕을 밝히는 것(明明德)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新民), 그리고 지극

히 착한 데 있는 것(止於至善).

2편 수기 : 『대학』에서 말한 밝은 덕을 밝힘(明明德). 다음과 같이 모두 열세 조목임

- 1장 총론(總論)
- 2장 입지(立志)
- 3장 수렴(收斂) : 목표를 정하여 흩어진 마음을 구해 『대학』의 기본을 세움
- 4장 궁리(窮理) : 『대학』에서 말한 격물치지(格物致知)
- 5장 성실(誠)
- 6장 기질을 교정하는 것(矯氣質)
- 7장 양기(養氣)
- 8장 정심(正心) : 『대학』에서 말한 성의(誠意)·정심(正心)
- 9장 검신(檢身) : 『대학』의 수신(修身)
- 10장 회덕량(恢德量) : 덕량을 넓힘
- 11장 보덕(輔德)
- 12장 돈독(敦篤) : 성의·정심·수기의 남은 뜻을 거듭 논한 것
- 13장 그 효과를 논함 : 수기(修己)가 지선(至善)에 있게 되는 것

3편 정가(正家) : 『대학』에서 말한 신민(新民) 중 제가(齊家)를 말함. 정가(正家)의 조목은 다음과 같이 여덟 개임.

- 1장 총론
- 2장 효경(孝敬)
- 3장 형내(刑內, 아내에게 모범이 되는 것)
- 4장 교자(教子)
- 5장 친친(親親) :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처자(妻子)에게 모범이 되며, 형제 간에 우애하는 도리
- 6장 근엄(謹嚴)
- 7장 절검(節儉) : 미진(未盡)한 뜻을 미루어 연역(演繹)함
- 8장 공효(功效) : 제가(齊家)를 지선(至善)에 이르게 함

4편 위정(爲政) :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말함. 위정(爲政)의 조목은 다음과 같이 열 개임

- 1장 총론(總論)
- 2장 용현(用賢) :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
- 3장 취선(取善) : 선한 이를 취함. 『대학』에서 말한 “어진 사람이라야 능히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뜻
- 4장 식시무(識時務) : 시무를 알아야 함
- 5장 법선왕(法先王) : 선왕을 본받음
- 6장 근천계(謹天戒) : 하늘의 경계를 삼가라는 것. 『대학』에서 인용한 “은(殷)나라를 거울로 삼을 지어다. 준명(俊命, 하늘의 큰 명)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뜻
- 7장 입기강(立紀綱) : 『대학』에서 말한 “나라를 가진 자는 삼가야 할 것이니 치우치면 온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뜻
- 8장 안민(安民)
- 9장 명교(明教) : 『대학』에서 말한 “군자에게는 혈구(絜矩)의 도가 있으니, 효도하고 공경하게 하면 배반하지 않는다.”는 뜻
- 10장 공효(功效) :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가 지극히 선함(至善)에 있게 되는 것
- 5편 성현도통(聖賢道統) : 『대학』의 실적(實跡)임

이러한 『성학집요』를 『율곡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8권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권(『율곡전서』19) : 임금에게 이 책을 올리는 의미를 밝힌 “진차(進劄)”와 함께 서문, 통설 등을 실음
- 2권~4권(『율곡전서』20~22) : 수기편(修己篇). 자기 몸의 수양에 대한 내용
- 5권(『율곡전서』23) : 정가편(正家篇). 가문을 바로 하는 법을 서술
- 6권~7권(『율곡전서』24~25) : 위정편(爲政篇). 올바른 정치의 방법
- 8권(『율곡전서』26) : 학문과 위정의 바른 줄기를 밝힌 성현도통(聖賢道統)

08. 『격몽요결』

율곡이 42세 때 선조 10년, 즉 1577년에 쓴 책이다. 이해 3월에 그는 부제학을 사퇴하고 파주 율곡마을로 돌아왔다. 그 뒤 10월에 해주 석담(石潭)으로 가서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때 지은 책이다.

율곡은 『격몽요결』 서문에 당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해산(海山)의 남쪽에 있을 때 한두 학생이 찾아와 학문을 물었다. 내가 스승이 될 만한 게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처음 학문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모르고, 굳은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배우겠다고 한다면 피차에 도움 될 것이 없고 도리어 남의 조롱만 사게 될까 봐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간략하게 책 한 권을 써서 마음을 세우고, 몸가짐을 단속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남을 접대하는 방법을 간단히 서술하여 『격몽요결』이라 이름하였다. 학생들이 이것을 읽고서 마음을 씻고 즉시 공부에 착수하게 하고자 한다. 나 역시 오랫동안 구습에 얽매어 괴로워하던 차에 이것으로 스스로를 경계하고 반성하고자 한다. 정축년 12월 덕수(德水) 이이 씀.”

‘격몽’이란 몽매함을 깨우친다는 뜻이며 ‘요결’은 그 일의 중요한 비결이란 뜻이다. 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도학(道學)의 입문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이후에 여러 번 출판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훈몽자회(訓蒙字會)』 등과 함께 널리 읽혔다.

『격몽요결』은 다음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배우고 깨우쳐야 할 10가지 덕목을 총 10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제1장 입지(立志)
- 제2장 혁구습(革舊習)
- 제3장 지신(持身)
- 제4장 독서(讀書)
- 제5장 사친(事親)
- 제6장 상제(喪制)
- 제7장 제례(祭禮)
- 제8장 거가(居家)
- 제9장 접인(接人)

제10장 처세(處世)

이 책의 끝에는 사당도(祠堂圖), 시제도(時祭圖), 설찬도(設饌圖)와 제의(祭儀)의 출입의(出入儀), 참례의(參禮儀), 천헌의(薦獻儀), 고사의(古事儀), 시제의(時祭儀), 기제의(忌祭儀), 묘제의(墓祭儀), 상복중행제의(喪服中行祭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문 첫 부분에 율곡은 학문의 목적, 즉 글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른바, 학문이란 것은 역시 이상스럽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저 아버 된 자는 자애로워야 하며, 자식 된 자는 효도해야 하고, 신하 된 자는 충성해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형제간에는 우애로워야 하며,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일에 따라 각기 마땅한 것을 취할 뿐이요, 현묘한 것에 마음을 두어 기이한 것을 노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문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꼭 막혀 있고 식견이 좁기 때문에 모름지기 글을 읽고 그 이치를 연구하여 행해야 할 길을 밝힌 뒤에야 학문에 나아가는 것이 올바름을 얻고 실천함이 합당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에 있는 줄은 모르고 망령되게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고 자기는 자포자기하니, 얼마나 가엾은 일인가.”

현묘하고 기이한 것을 배우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취해야 태도를 배우는 것이 학문이라고 하였다. 즉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연마하는 구체적인 수신(修身)의 방법이 학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문이란 현대적인 의미로 어떤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일이 아니라 ‘글을 읽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학문의 요체를 율곡은 유교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09. 『동호문답』

조선 시대 선조 2년(1569년)에 율곡이 지은 문장이다. 이때 율곡은 34세로 홍문관 교리였다. ‘동호문답(東湖問答)’은 ‘동쪽 호수(東湖)에서 묻고 대답함’이란 뜻으로 율곡이 ‘사가 독서(賜暇讀書, 휴가를 받아 책을 읽음)’의 과제물로 제출한 것이다. 당시에 조정은 젊은 관료들을 선발하여 휴가를 주고, 업무를 떠나 동호에 있는 독서당(讀書堂)에서 글을 읽도록 하였는데, 매달 과제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율곡은 홍문관 교리로서 여기에 선발된 것이다. 현재 필사본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선조수정실록> 3권, 선조 2년 7월 1일에 ‘교리 이이가 『동호문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교리 이이가 『동호문답』을 올렸다. 당시에 호당(湖堂)에서 사가 독서(賜暇讀書)를 하는 유신(儒臣)들은 규정으로 매달 지은 시문을 바치면, 대제학(大提學)이 등급을 매겨서 과업(課業)에 힘쓰도록 하였다. 이이는 그곳에 있으면서 매달 과제로 수만 글자에 달하는 『동호문답』을 지어 올렸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같은 날짜 실록에는 『동호문답』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내용은 먼저 고금의 군신 관계와 국가의 치란에 대하여 논했고, 이어 현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조목별로 자세히 서술한 것이었다. 임금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동호문답』은 말하자면 문답식으로 서술한 정치사상서라고 할 수 있다. 『동호문답』의 맨 첫 부분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동호(東湖)의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다.

손님 :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떻게 하면 혼란스러워집니까?

주인 :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경우가 두 가지이고,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손님 :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 : 임금의 재주와 지혜가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호걸(豪傑)들을 잘 부리든지, 아니면 임금의 재주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현명한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다스려집니다. 이것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경우가 두 가지란 뜻입니다. 반면에 임금 스스로 자기가 총명하다고 믿고 여러 아랫사람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만 치우치게 믿어서 임금 자신의 귀와 눈을 가리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이것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란 뜻입니다.

위에 소개한 인용문은 「임금의 도리를 논함(論君道)」의 첫 부분이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모두 11개의 주제에 대해서 논한 것이 『동호문답』이다.

『동호문답』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논군도(論君道) :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임금의 바른 도리인가를 논함
- (2) 논신도(論臣道) : 신하의 도리를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
- (3) 논군신상득지난(論君臣相得之難) : 도학을 존중할 것을 논함
- (4) 논동방도학불행(論東方道學不行) : 우리나라에서 도학이 행해지지 못함을 논함
- (5) 논아조고도불부(論我朝古道不復) : 우리나라에서 옛 도가 행해지지 못함을 논함
- (6) 논당금지시세(論當今之時勢) : 현재의 형세를 논하고 정치의 방법을 논함
- (7) 논무실위수기지요(論務實爲修己之要) : 실질에 힘쓰고 수양의 요체를 논함
- (8) 논안민지술(論安民之術) :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법을 논함
- (9) 논교인지술(論教人之術) : 백성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방법을 논함
- (10) 논변간위용현지요(論辨奸爲用賢之要) : 간신을 멀리하고 현인을 등용해야 함을 논함
- (11) 논정명위치도지본(論正名爲治道之本) :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임을 논함

『동호문답』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율곡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끝을 맺었다.

손님 : 그대의 말은 참으로 시무에 절실한 것이지만, 다만 이전의 왕이 이미 정해놓은 일을 후대의 왕이 어찌 감히 고치겠습니까?

주인 : (길게 몇 번 탄식 하고) 세속의 견해가 하나같이 이러니 왕도 정치를 끝내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대의 일을 잘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 것은 명종의 뜻이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 것은 명종의 일입니다. (중략)

아! 국시를 정하지 않으면 인심이 쉽게 동요되고, 명분을 바로 잡는 일이 미진하면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간사한 무리의 소굴을 소탕하여 국가의 원기(元氣)를 붙잡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군자는 믿을 곳이 없어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할 것이고, 소인은 엿보는 곳이 있어 그 악을 이으려고 할 것이니,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대의 말처럼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탓하여 반드시 고치지 않는 것을 효도라고 한다면, 옛날에 문왕(文王)은 상(商)나라를 섬겼지만 그의 아들 무왕(武王)은 주(紂)를 죽였으니, 이것도 또한 아버지의 도를 배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님 : (두 번 절하며) 그대의 말이 참 좋습니다. 그대의 말이 만약 시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삼황오제의 왕도정치를 볼 것입니다.

주인은 물러가서 그 문답한 말을 기록하였다.

10. 『만언봉사』

1574년(선조 7년)에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당시 선조 임금은 지진이 일어나는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정의 신하로부터 초야에 이르기까지 널리 의견을 구하는 교지를 여러 차례 내렸다.

당시 임금이 내린 교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생각해 보면 임금의 마음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근원인데,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임금의 마음에 바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인가? 학문을 닦고 연구하는 것은 앞에 이르는 일인데 배움에 진보가 없기 때문인가? 조정은 나라의 모범인데 실질적인 것은 없으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일 만들기만 좋아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인가? 백성들의 생업은 나라의 근본인데, 백성들이 곤궁하고 또 그들을 막고 억누르는 참상이 있기 때문인가? 현명한 자와 사악한 자가 뒤섞여 관직에 진출했는데, 혹시라도 임금이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가? 정권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여지가 있어 혹시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기 때문인가? 언로가 열리지 않아서 임금의 눈과 귀가 아직도 막혀 있기 때문인가? 초야에 숨어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아직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수많은 관리가 죽은 듯이 놓고 있어 많은 일이 망가졌기 때문인가? 옥사(獄事)가 지체되어 백성의 원망이 많기 때문인가? 사치와 신분에 어긋난 일들이 아직도 왕성한데 어떻게 그것을 고칠 것인가? 인심은 날로 악화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교화(教化)할 것인가? 도적은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치게 할 것인가? 군정(軍政)이 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손질할 것인가?”

당시 재난과 기상 이변이 생기면 임금은 삼가고 조심하며 반성하고 바른 정사를 펼쳐야 한다. 군주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 그러한 불상사가 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그래서 신하들과 선비들에게 널리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조언을 구했다. 위 인용문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은지 잘 나타나 있다. 율곡도 이러한 교지를 읽고 『만언봉사』를 올리게 된 것이다.

당시 율곡은 우부승지로 근무하고 있었다.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경과 할 때였다. 그는 그동안 관직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직접 겪은 다양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유교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이러한 상소문을 올렸다.

‘만언봉사’란, ‘만언(萬言)’, 즉 1만 자의 문장으로 된 ‘봉사(封事)’ 즉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밀봉(密封)하여 올린 의견서라는 뜻이다. 실지로는 이 상소문은 1만 2,000자가 넘는다. 1574년 즉 갑술년에 지었다고 하여 ‘갑술만언봉사(甲戌萬言封事)’라고도 하며 혹은 ‘만언소(萬言疏)’라고도 불린다. 1책 5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곡은 당시 정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비판하였는데, 상하 간의 신뢰가 없고, 관리들에게 책임감이 없으며, 경연(經筵)의 운영과 재해 대책, 그리고 백성의 복리 증진과 인재 등용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임금의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고 분발해야 하며,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하고 어진 선비를 가까이 할 것을 들었다. 그리고 안민(安民)의 요체로 개방적인 의견 수렴, 공안(貢案)의 개혁, 사치풍조 개혁, 선상제도(選上制度)의 개선, 군정(軍政) 개혁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건의하였다. 특히, 안민에 관해서 서술할 때는 역대 조정에서의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한 뒤에 ‘옛 제도를 개량하여 새로운 법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의 원기(元氣)가 쇠퇴하여 장차 10년이 못 가서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성으로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상소문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상소문은 먼저 임금이 직언을 구하는 심정과 취지를 서술하고, 본문에서 당시의 폐단에 대한 7개 항목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7가지 폐단은 다음과 같다.

- (1) 상하가 서로 믿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 (2) 맡은 일에 실질적 노력이 없음
- (3) 경연에서 성취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 (4) 현인을 등용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 (5) 재난에 대응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 (6) 여러 정책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 (7) 인심(人心)에 선을 지향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마지막으로 율곡은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무릇 이 일곱 가지 우려는 지금 세상의 깊은 고질병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민생이 곤경에 빠진 것은 오로지 이것들이 원인입니다. 이 일곱 가지 우려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록 전하께서 위에서 성스러운 마음을 수고롭게 하시고, 아래에서 맑은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중략)

지금의 조정은 아직 편안하고 권세를 잡았던 간신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방의 국경은 아직 온전하여 외적의 침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오히려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기회를 놓쳐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나라가 한가할 때 정치와 형벌 제도를 고쳐서 바로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나라를 떨쳐 일으킬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모두 9개 항목을 제시했다.

(1) 임금이 자신의 몸을 닦은 수양의 4개 항목

- 뜻을 세움
- 성학(聖學)에 힘씀
- 사심을 버리고 공평한 도량을 넓힘
- 어진 선비를 가까이함

(2) 백성을 편안케 하는 5개 항목

- 정성스러운 마음을 열어 신하들의 충정을 얻음
-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앴
-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사치 풍조를 개혁함
- 선상(選上)의 제도를 바꾸어 공천(公賤)의 고통을 덜어 줌
- 군정(軍政)을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함

마지막으로 율곡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선대 임금들이 남긴 좋은 정치의 영향은 이미 사라지고,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남겨 놓은 악습만 바야흐로 꽃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깨끗하고 공정한 여론을 비록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힘은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비유한다면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한창 젊을 때 주색에 빠져 몸을 이리저리 많이 해쳤어도 그때는 혈기가 왕성한 때라 몸이 상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만년에 이르러서야 그 해독이 노쇠함을 틈타서 사납게 나타나, 비록 조심하며 몸을 보양해도 원기(元氣)가 이미 손상되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일이 참으로 이와 같으니, 앞으로 10년이 못 되어 화란(禍亂)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중략)

전하께서 저의 대책을 쓰신다면 그 진행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성실하고 믿음직하게 시행하게 하고 견고한 확신을 갖고 지켜 나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옛것만 지키고자 하는 꼭 막힌 세속의 견해 때문에 바꾸지 마시고, 올바른 것을 비방하며 헐뜯는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3년 동안 이같이 하여 나라일에 개선이 없고 백성이 편안하지 않으며 군사들이 정예화되지 않는다면, 전하를 속인 죄로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참고자료>

- 『율곡전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김경남, 「율곡 이이의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의 저본 및 편찬 방법에 관한 고찰」, 『태동고전연구』 49, 2022.
- 김형찬, 『율곡이 묻고 퇴계가 답하다』, 바다출판사, 2018.
- 미조구치 유조 등, 김석근 등역, 『중국사상문화사전』상, 책과함께, 2011.
- 송석구, 『율곡의 철학사상』, 중앙일보사, 1884.
- 오하마 아키라, 이형성 역, 1997, 『범주로 보는 주자학』, 예문서원.
- 이동인, 『율곡의 사회개혁사상』, 백산서당, 2002
- 이병도, 『栗谷의 生涯와 思想』, 서문당, 1972.
- 이이 저, 이종란 역, 『만언봉사-율곡의 국가개혁론』, 율곡 연구원, 2016.
- 이이 저, 임옥균 등역, 『새로 읽는 성학집요』, 율곡 연구원, 2015.
- 이종란, 「해제」, 『만언봉사-율곡의 국가개혁론』, 율곡 연구원, 2016.
- 이종태, 「율곡 이이의 심성론」, 『율곡사상연구』제3집, 1997.
- 이흥균, 「정·주로부터 본 퇴·율의 이기론」, 『율곡사상연구』제5집, 2002.
- 임옥균, 2007, 『이이 - 정치적 실천철학의 완성』,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세영, 「율곡 군주론의 정치사상적 의의」, 『21세기 정치학회보』11-2, 2001.
- 정재훈,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 재론」, 『역사문화논총』7, 2012.
- 조장연, 「우계와 율곡의 심성론 연구」, 『동양철학연구』제18집, 1998.
- 최정묵, 「율곡의 정치사상과 그 영향」, 『율곡사상연구』20, 2010.
- 황의동, 「율곡의 ‘이통기국’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56, 2009·제2권.
- 황준연, 『율곡철학의 이해』, 서광사, 199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